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홍 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국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에 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박 지 연

한국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에 관한 연구
- 하회, 양동, 외암마을 중심으로-

이 홍 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박 지 연

인 준 서

박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채민규 인

심사위원 김태희 인

심사위원 이홍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현대의 공간디자인에서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통공간의 공공성 요소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을 전통마을의 마을길과 마을마당으로 구체화하였다. 이것은 전통공간의 공공성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이 내포된 공공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사례지역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마을 중 지리적 조건이 상이한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외암마을로 하였다. 연구는 사례지역의 현장조사 및 사료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파악하고 마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의 결과로 한다.

획일화, 단일화를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현대사회는 경제성장, 편리한 생활 등 장점을 얻은 반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소통단절,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도시문제의 원인은 인간과 사회, 환경 등 상호간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공동체라는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의 공공성 쇠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시켰다. 그 이유는 기능의 편리화를 위주로 진행 된 도시발전 과정에서 전통이 단절되어 예로부터 전해져온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공간 형성을 위해 전통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전통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공간인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

여 전통공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문제 해결에 사용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대 도시공간은 개인주의와 핵가족화현상이 만연하고, 인간소외현상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는 공동체생활 속에서의 소통단절이란 사회문제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발생하고 개인주의화로 인해 공공성 쇠퇴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시점에 도시문제의 극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주체의식이 높아져 삶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었고, 삶의 터전에 대한 의미가 공동체의 터전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은 기존의 비환경적 공간에서 벗어나 사용자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진 공공성이 확보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다른 맥락의 도시문제는 역사 및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전통의 맥이 끊어진 정체성 상실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매체의 도입은 세계화를 단축시켰고 정체성 확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을 근본으로 한 공간의 정체성 회복이 요구되어지고 그에 밑바탕이 되는 전통의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공공성회복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전통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분석하여 전통적 공공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분석의 대상으로 전통공간 중 현대도시의 원류인 전통마을을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공공공간인 마을길과 마을마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마을별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전통공간의 공공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진행 되어질 연구의 배경지식이 되고자 한다.

2장과 3장은 기반연구로서 2장에서는 공공성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공공공간의 연구를 통해 배경지식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도시학자 '코스토프(S.Kostof,1936~1991)'의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공공성 파악을 위한 연구의 틀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전통마을의 형성에서부터 공간구성과 원리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이 중에서 공공공간으로 선정한 마을길과 마을마당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4장과 5장은 본 연구로서 4장 사례검증 및 분석에서는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2장에서 정립한 공공성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3장에서 선택한 마을길과 마을마당의 공공성을 분석한다. 사례대상지는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외암마을로 구체화하였고 현장조사 및 분석 한 후 마을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결과표로 정리한다. 5장에서는 결과표를 바탕으로 전통마을의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마을의 공공공간인 마을길과 마을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주택에서부터 골목길을 지나 동네길과 동네길을 거쳐 도착하는 마을마당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적영역이다. 이러한 공간은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분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충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즐기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완성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마을의 구성 원리 중 마을길과 마을마당이 가지는 공공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 째,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은 공동체의식 형성을 필요로 하고 공공공간을 구성하였다.
- 둘 째, 사회구성원들은 장소 활용하는 활동성에 따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였다.
- 셋 째, 전통마을의 마을길은 위계와 기능에 따라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로 나눌 수 있고 활동성과 연속성을 통해 마을길의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길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유대감 형성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넷 째, 마을마당은 마을의 지형과 생활양식에 따른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마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였다.
- 다섯째, 마을마당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이는 마당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준다.
- 여섯째, 공공공간의 공공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었지만 같이 즐기고 공유하는 공간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분석하고 전통공간 안에서 표현된 공공성을 분류, 분석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전통의 요소를 가지는 구체적인 공공공간이 제시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연구에서는 공적영역의 기획에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한 발전적인 공공공간의 형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2.1 연구의 범위	5
2.2 연구의 방법	7
II. 공공성의 역사	9
1. 공공성의 개념	9
1.1 사전적 의미	9
1.2 사회맥락적 의미	10
2. 공공공간의 의미	11
2.1 공공공간	11
2.2 공공공간의 유형	15
3. 전통마을의 공공성	17

Ⅲ.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	18
1. 전통마을의 형성	18
1.1 전통마을의 구성원리	18
1.2 전통마을의 유형 및 지정배경	19
2.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21
3. 전통마을의 공공공간	22
4. 마을길과 마을마당의 종류	25
4.1 마을길	25
4.2 마을마당	31
Ⅳ. 공공성 사례 검증 및 분석	35
1. 대상지 선정	35
1.1 마을의 유형	35
1.2 대상지 선정기준	35
2.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외암마을	38
2.1 안동하회마을	38
2.2 월성양동마을	41
2.3 아산외암마을	43
3.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	46
3.1 마을길의 공공성 분석기준	46
3.2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기준	48
4. 사례분석	50
4.1 마을길	50
4.2 마을마당	65

V. 마을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78
1. 마을길의 공공성 분석결과	78
1.1 공통점과 차이점	81
2.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결과	84
2.1 공통점과 차이점	86

VI. 결론	88
--------------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전통마을의 지정현황	5
[표-2] 공공공간의 분류	16
[표-3] 전통마을의 유형	20
[표-4] 마을길의 위계성	46
[표-5] 마을길의 활동성	47
[표-6] 마을길의 연속성	47
[표-7] 마을마당의 공공성	48
[표-8] 마을마당의 형성과정	48
[표-9] 마을마당의 활동성	49
[표-10] 마을마당의 장소성	49
[표-11] 하회마을길의 활동성	55
[표-12] 양동마을길의 활동성	56
[표-13] 외암마을길의 활동성	57
[표-14] 하회마을길의 변환방법	58
[표-15] 하회마을길의 길이 분포	59
[표-16] 하회마을길의 폭 분포	60
[표-17] 양동마을길의 변환방법	61
[표-18] 양동마을길의 길이 분포	61
[표-19] 양동마을길의 폭 분포	62
[표-20] 외암마을길의 변환방법	63

[표-21] 외암마을길의 길이 분포	63
[표-22] 외암마을길의 폭 분포	64
[표-23] 하회마을마당의 형성과정	65
[표-24] 양동마을마당의 형성과정	67
[표-25] 외암마을마당의 형성과정	70
[표-26] 하회마을마당의 활동성	72
[표-27] 양동마을마당의 활동성	73
[표-28] 외암마을마당의 활동성	74
[표-29] 하회마을의 장소성	75
[표-30] 양동마을마당의 장소성	76
[표-31] 외암마을마당의 장소성	77
[표-32] 마을길의 위계성 분석결과	78
[표-33] 마을길의 위계성에 따른 공공성 분석결과	79
[표-34]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결과	84

그림 목차

[그림-1]	연구흐름도	8
[그림-2]	공공성의 사회맥락적 의미	10
[그림-3]	공간의 연속	23
[그림-4]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길	24
[그림-5]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마당	24
[그림-6]	부용대에서 바라본 하회마을	38
[그림-7]	양동마을 전경	41
[그림-8]	외암마을 전경	43
[그림-9]	하회마을길의 분포	50
[그림-10]	하회마을길	51
[그림-11]	양동마을길의 분포	52
[그림-12]	양동마을길	53
[그림-13]	외암마을길의 분포	54
[그림-14]	외암마을길	54
[그림-15]	하회마을마당	66
[그림-16]	하회마을마당사진	66
[그림-17]	양동마을마당	68
[그림-18]	양동마을마당사진	69
[그림-19]	외암마을마당	71
[그림-20]	외암마을마당사진	7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논문은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통공간의 공공성 요소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을 전통마을의 마을길과 마을마당으로 구체화하였다. 이것은 전통공간의 공공성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이 내포된 공공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마을 중 지리적 조건이 상이한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외암마을로 하였다. 연구는 사례지역의 현장조사 및 사료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파악하고 마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의 결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전통공간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능의 편리화를 위주로 진행된 도시발전 과정에서 전통이 단절되어 예로부터 전해져온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공간 형성을 위해 전통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공간인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통공간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

문제 해결에 사용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별 주체의식이 높아져 삶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었고, 삶의 터전에 대한 의미가 공동체의 터전으로 상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비환경적 공간에서 벗어나 사용자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진 공공성이 확보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른 관점의 도시문제로는 보편화된 질서체계와 이로 인한 기능주의적 발상으로 획일화된 건축 환경 조성이 역사와 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소적 고유성의 파괴는 물론 전통의 맥이 유지되지 못한 채 정체성 상실의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관심들로 인해 획일화된 근대성을 반성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변화로 전통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회복한 공공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사회공간의 전환이 대두되게 된 근원일 수 있다. 현대사회공간의 사회관계 및 공간관계가 삶의 논리보다 교환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관계의 논리보다 기술의 논리가 만연한 사회로써 지속된다면 사람과 환경이 상호작용할 수 없고 사회 나름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 전통적 공공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 되는 사회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또한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도시는 분리개발된 현대사회공간의 문제 극복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도시디자인은 시공간적 연속체로서의 '장소', 주체의 경험수단으로서의 '체험', 고정되지

않은 복합적이고 다층적 '시점'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공간적 연속체에서의 체험디자인, 형태가 아닌 맥락의 디자인,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관계들이 중첩되는 관계론적인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로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공공성의 회복, 일상성의 정착, 장소성의 복원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공공성은 일상성과 장소성을 담보하는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공공성은 환경성, 사회성, 문화성 등의 도시디자인에서의 환경목표, 또는 준거척도 등을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이자, 궁극적 목표인 동시에 디자인 과정에서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의 준거척도라 할 수 있다.¹⁾

본 연구의 배경은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비환경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사용자적 관점에서 고려된 공공성이 확보되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공공성을 회복한 공간계획은 후세에 남겨질 전통성과 정체성이 담긴 공간 만들기를 추구한다. 이는 미디어의 발달로 급속히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나라별 정체성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이 전통에 대한 관심과 연구 증가로 이어져 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배경으로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원류인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공공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은 자연과 인간을 나누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더불어 생각하는 유기체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²⁾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가 모더니즘적 폐쇄성의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한 '의사소통적'공간에서도

1) 김민수, 문화주의 도시건축 디자인론, 2000, 경성대학교 학술연구. p.186

2) 길성호, 현대건축사론, Spacetime, 2001, p.47~51

드러나듯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공간인 공공영역의 활용은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역사성, 시대성, 문화성을 고루 가진 전통 건축의 집합체인 전통마을의 건축은 도시적 차원의 비환경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별공간 구성원리'와는 다른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를 이용한 '연속공간 구성원리'라는 점도 연구대상으로 정하게 된 배경이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으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마을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마을 공간조직 중에서 길과 마당으로 구체화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길을 쓸고 물을 뿌리며 자신들이 생활하는 마당으로서 가로를 관리하면서 마을의 공공영역에서 공동체성을 확립하였다. 서양의 경우에는 광장에서 공동체 의식 형성이 이루어 졌으나, 우리의 경우는 길 그 자체가 일종의 생활공간으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광장이었다. 또한 길가에 늘어선 집들의 처마 밑이나 거기에 놓여있는 평상이 사람들의 사권의 장으로 활용되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공간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요인인 공공성을 회복시키면서 전통적인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통마을의 공간조직인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3) Nisijawa T , 이법재, 김병운 역, 외부환경디자인, 기분당, 1984, p.14~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전통건축의 원형적 질서가 표출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공공생활 장소로 주목되고 있는 마을길과 마을마당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전통마을은 오랜 시간을 거쳐 시대의 변화에 큰 동요 없이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간직하며 전통적 맥을 이어온 장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마을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생활관이 잘 나타난다. 이에 문화재청의 기준에 맞춰 선정된 전통 마을 중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외래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고 판단되고 우리나라 주요 전통마을⁴⁾ 중 입지적 특성이 구별되는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 외암마을 중심으로 대상적 범위를 정해 진행하였다.

[표-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전통마을의 지정현황

마을명	법적근거	내용
하회마을	문화재 보호법	중요민속자료(122호)
성읍마을		중요민속자료(188호)
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189호)
왕곡마을		중요민속자료(235호)
외암마을		중요민속자료(236호)
낙안읍성민속마을		사적(302호)

4) 김정원, 가로조건에 따른 전통주거지의 좌향 및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2003, 성균관대, p.2

■ 공간적 범위

대부분 공공성이라 하면 도시적 관점에서의 공개공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을에 존재하는 공공장소인 마을길과 마을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마을의 구성요소들은 주민들의 삶을 수용해 온 장소이며, 주민과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이 일어난 공간이다. 또한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간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되어온 지속성과 역사성을 가지는 장소이다.⁵⁾ 이처럼 마을 공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접근하였다.

■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코스트프'의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간의 공공성을 사용자측면, 시지각적측면, 정서적측면으로 나눠 파악하였다. 이것은 공공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공공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과 부합되는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공성의 검증을 위한 대상인 전통마을에 대한 내용은 생활모습이나 주민의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장소라는 것과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및 공간감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동체적 속성과 관련된 동족관계나 근린관계로 얽힌 가족을 단위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공간구조인 마을길과 마을마당의 일반적인 의미와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 선행논문의 분류 기준을 통해 본 연구와 맞는 기준으로 발전시켰다.

5) 김희춘, 한국의 전통과 건축, 건축학회창립30주년 기념논문, 1975, p.18

2.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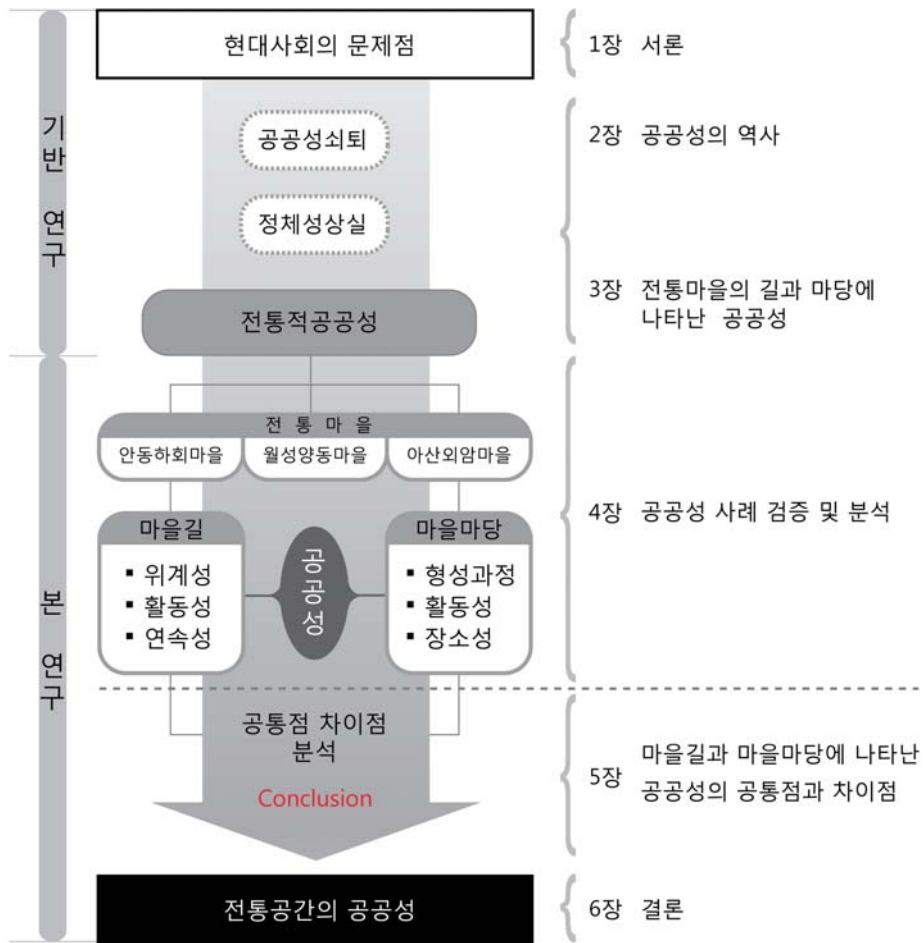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정량적, 실증주의적인 연구와 달리 기술적이며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2장과 3장은 기반연구로서 2장에서는 사회적·도시적 측면의 공간 인식과 특성을 알아보고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사회맥락적의미의 공공성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하여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공간의 이론적 배경지식을 정리하고 '코스토프'의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공공성 파악을 위한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전통마을의 정의와 공간 형성배경, 공간조직 및 입지 특성 등 전통마을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고 연구 대상지 선정을 위해 역사 및 문헌조사와 함께 '국가정보지리원'에서 제작한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입지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 분석의 요소인 길과 마당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정립한다.

4장과 5장은 본 연구로서 4장에서는 한국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의 사례를 대상지별로 분석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선정된 전통마을 중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론조사를 통해 대상마을을 파악했다. 사례분석은 우선 2장에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립한 연구에 적용할 공공성의 요소들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또한 길과 마당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포도와 규모, 장소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마을 지형도에서 길의 길이 및 폭을 수치화하고 공공성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을마당은 지역조사 및 특정요소를 기준으로 선

정하고 마찬가지로 지도를 데이터화하여 기본조사를 하고 공공성 유형을 분석했다. 5장에서는 마을길과 마을마당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을 분석했다. 방법은 입지적 특성이 다른 대상마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결과표로 작성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흐름도



Ⅱ. 공공성의 역사

1. 공공성의 개념

1.1 사전적 의미

'공공(public)'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470년으로 당시에 'Public'의 의미는 '사회에서의 공동선(the common good in society)'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70년 후에 '일반 대중의 이목에 명백히 개방된 것'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⁶⁾ 또한 형용사형인 'Public'은 "공공의, 공중의, 일반 국민의, 국민 전체를 위한, 국민 대중의"⁷⁾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명사형으로서 'Publicity'는 일반인들에게 보여 지고 알려지는 어떤 상태, 일반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되는 지식, 정보.⁸⁾라고 한다. '공공성(公共性)'은 문자 그대로 '공공(公共)'적인 특성으로서 '공공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영어사전의 'Public'의 개념에 해당한다.

'공공(公共)'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사회나 단체의 구성원

6) Senett, R(1987), Public Domain, Nathan Glazer and Mark Lilla,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New York

7) 동아출판사 편집국 편, 동아프라임영한사전, (주)동아출판사, 1989, p.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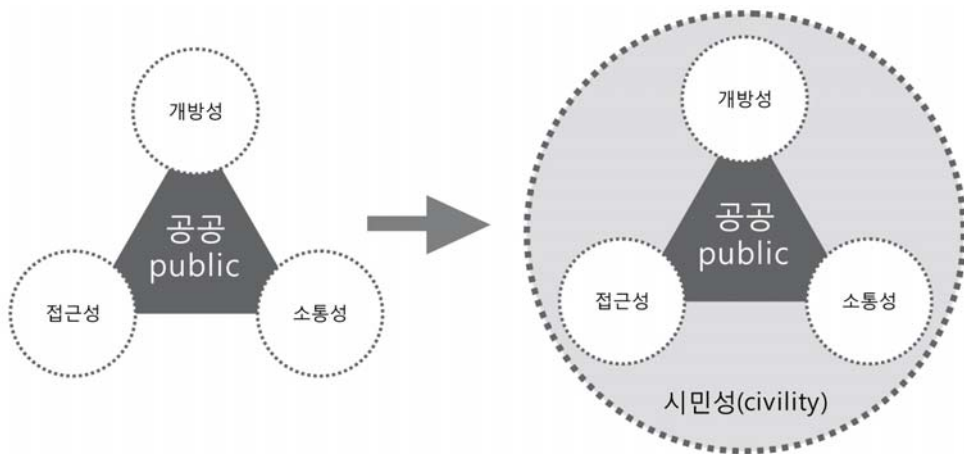
8) Hornby, A.S.,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687

Publicity : n [U] 1. the state of being known to, seen by, everyone 2.(busin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win public interest

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관계되는 것 "9)으로 정의 내린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이면서 개인적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2 사회맥락적 의미

[그림-2] 공공성의 사회맥락적 의미



'공공'의 개념을 구성하는 정의적 개념논의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 개념은 시민사회의 '시민성(civility)'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가족과 대비시켜 보면 그 개념이 뚜렷해진다. 가족의 지배원리가 사랑, 순종, 효와 같은 인간적 도리나 의무, 감사라 한다면, '선택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지배원리는 '계약과 합의'이다. 가정에서의 '안전, 불가피함, 의무'는 시민사회라는 공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성, 유동성'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즉 낯선 사람

9) 남광우, 이용백, 이윤환 감수,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1980 수정판

들과 협조를 바탕으로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불안정하면서도 일시적인 의무로 대체되는 것이다.¹⁰⁾

이는 '시민성(civility)'이 '공공(public)'의 존재기반임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공공성의 개념은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고 서로간의 열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나 인식을 의미한다.

2. 공공공간의 의미

2.1 공공공간

'공공영역(public sphere)'이란 공론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공론창출 능력을 지닌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집회결사, 의사표현,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마당을 의미한다. 공공영역은 우리의 생활, 문화, 일상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공간적 표현이 공공공간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이 공공성이 나타나는 거시적범위라면 공공공간은 건축의 공공성이 나타나는 구체적범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다 목적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다.

'카(E.H Car, 1892~1982)'는 공공공간을 "하나의 커뮤니티를 묶어주는 기능적·의식적 활동을, 일상에서 늘 하는 과정이든 정기적 축제이든,

10) Scruton, R.(1987), Public Space and the Classical Vernacular, Nathan Glazer and Mark Lilla (eds),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New York

수행하는 공동의 터전이자, 공동의 생활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왈저(Michael Walzer,1935~)'는 "우리가 친척도, 친구도, 직장동료도 아닌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정치·종교·상업·스포츠를 위한 공간이며, 평화적 공존과 개인적이지 않은 우연한 만남의 공간" 이라고 주장한다.

'프랜시스티발드(Francis Tibbalds)'는 "공공공간을 공중이 물리적,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조직의 모든 부분들" 이라고 하면서, 도시의 가로·공원·광장에서 확장하여 공공영역을 둘러싸거나 경계를 지우는 건물까지도 포함시킨다.¹¹⁾ 공공공간의 이와 같은 정의들에서 강조되는 것은 '접근의 개방성'과 '활동의 다양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공간을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열려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이 허용되며,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제공·관리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영역의 시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릭스페이스(Public Space,2003)'에서는 공공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¹²⁾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일정한 축제 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장소이다. 이는 사용자들의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행위들은 공공공간의 공공성을 증명한다.

11) Madanipour, A.(1995), Reading the City, Managing Cities: The New Urban Context, Wiley, J. & Sons Ltd, Chichester, England

12) Diniel Stokols·Irwin Altman, editor, "Public Space", 손종우, 공공공간의 도시적 의미에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2000에서 재인용

'기디언(S.Giedion)'은 'The Heart of the City'에서 공공공간의 장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¹³⁾ 사람들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자발성이라는 잃어버린 힘을 일깨울 수 있는 감성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전 시대처럼 자유로운 하늘 아래 개방된 공간인 장소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들은 교통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도시학자 '코스토프'는 "광장은 마을이나 도시에서 공간의 제공이나 사람들의 만남을 위한 목적으로 배열된, 집이나 기타 다른 방해물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광장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여야 한다."¹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광장을 하나의 대표적 도시 속 공공공간으로 보고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공공공간은 만남의 장소이며 행위의 자율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갖는 공간이며 공동의 의식이 행해지는 공간으로서의 기념비성을 갖는다.

둘째, 광장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場)으로서 그 대상은 대중 전체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성을 가진 곳을 말한다. 또한 지역의 위계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 명시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3) S.Giedion, The Heart of the City, p.161, 손종우 논문 p.78에서 재인용

14) Spiro Kostof, "The Nature of Public Places", The City Assembled, Thames & Hudson, 1992, p.123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도 'The public'의 의미를 통해 공공공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공개성을 가진다.

둘째, 사적인 소유의 장소와 구별되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구축하여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¹⁵⁾

이는 물리적으로 열려있는 개방성과 공유성의 공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간의 삶은 서로간의 관계 맺기에서 시작하며 공동체생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간'도 소유하는 사람이 생기며, 사용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의 '공간'이다. 이처럼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이며 '공공공간'이야말로 가장 좋은 의미의 공간인 것이다. 또한 공공공간은 일상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공간의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공간은 열린공간, 외부공간이며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이중공간이다. 도시에 있어서 공공성이 높은 공간은 가로·광장·공원 등의 외부공간이며 이와 관련된 요소로는 보행공간·휴식공간·녹지공간·기타건물규모와 관련된 요소로 나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는 학자들의 공공공간의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높은 외부공간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요소로는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5) 한나아렌트, 폭력의세기, 김정한 옮김, 1999, p.13

16) 김철수,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6

2.2 공공공간의 유형

도시공간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구성되는데 공적공간이란 공유지에 조성되는 공공공간을 말하여, 공적공간은 이용자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 이용자가 그룹 혹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공공성 측면이 특히 강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공공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의 차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첫째, 의도적인 계획이 없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계획 이용하거나, 특정 이용자 집단의 반복적 이용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적공간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만남·휴식·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반복됨으로서 공적공간으로 일반화된 공간이다.

둘째,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된 공간으로 이 유형의 공간은 대개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가들이 공공과 개인을 의뢰인으로 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념광장, 공원 등 대규모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셋째, 진화되거나 변용(modification)된 공간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와 이용자 집단의 성격변화에 따라 초기의 계획의도가 변질된 공간이다.

이처럼 공공공간의 형성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공간의 상호 작용

17) 경실련도시계획센터, 2001, p.102

에 의해 형성되고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개인이 아닌 둘 이상의 다수의 행위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 혹은 변용되어지면서 일반화 되는 공간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공간의 공공성을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한다.

첫째, 사용자관점에서 공간의 공공성은 사용자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사용자들의 공간체류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시지각적관점에서 구체적 건축공간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인지시키고 자발적 이용률을 높여 공간에 공공성을 부여한다.

셋째, 정서적관점에서 공간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공간과 반응하는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2] 공공공간의 분류

공공공간의 형성과정에 의한 분류	'인간-공간'의 상호작용관점에 의한 분류
1. 의도적인 계획이 없는 공간 2. 세심하게 계획된 공간 3. 진화, 변용된 공간	1. 사용자관점 2. 시지각관점 3. 정서적관점

3 .전통마을의 공공성

전통마을은 물리적으로는 주거건축의 집합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혈연, 지연 집단이 구성원인 결속체이다. 또 전근대사회의 경우 대개 농업이나 어업의 생산 공동체이기도 한 물리적, 사회적 존재양식을 가진다.¹⁸⁾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이며 이러한 생활양식과 구성원들 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공동의식은 마을 공간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공공간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공간의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전통공간은 공간과 공간의 단절이 아닌 사용 목적에 의해 개방, 변형되는 전통의 창이나 문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을의 공간 구조는 사회·문화 등 시대를 반영하면서 변형, 발전되어졌다. 또한 전통건축의 길과 마당, 정자, 나무 등 외부 요인은 농경생활양식이 주를 이루고 협업을 통해 마을의 농사를 진행하는 한국전통마을의 고유의 생활양식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식의 표출 공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전통마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전통마을을 이해하고 공공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공공공간으로 정해진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전통적 의미의 공공성을 분석한다.

18) 김경원, 가로조건에 따른 전통주거지의 좌향 및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2003,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p.13

Ⅲ. 전통마을의 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

1. 전통마을의 형성

전통마을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되고 계승되어온 문화적 유형을 가진 군집을 이루고 있는 주거지"¹⁹⁾ 라고 정의할 수 있다.

1.1 전통마을의 구성원리

전통마을의 근간을 이루는 씨족마을은 그 양·질적인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마을 형식을 대표한다. 좁은 의미의 씨족마을은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및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씨족마을은 우선 그 구성원이 친밀한 혈연관계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조선시대라는 특수한 유교문화에서는 단순한 씨족적 관계를 넘어서는 독특한 내재적 질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씨족마을은 조선시대 이전·이후에 존재하였던 기타의 혈연·지연적 공동체 집단과 구분된다.

조선시대의 씨족마을이 갖는 독특한 내재적 질서는 구성원 사이의 친족 및 근린관계, 보다 구체적으로 입향조에서 시작되어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명백한 관계는 때로는 종·지가와 본·분가간의 위계적 관계로 때로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수평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마을 구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시간

19) 김경원, 가로조건에 따른 전통주거지의 좌향 및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3

의 흐름에 따라 양적 팽창 및 질적 전환의 과정을 겪게 되고 마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을의 사회적 관계는 종가와 종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종가는 씨족마을의 공간 구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내부 구조는 마을의 입지한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배후지, 주거지, 경작지 등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종가는 주거지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²⁰⁾

1.2 전통마을의 유형 및 지정배경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해체·변화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위기론적인 규제운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나름대로 보다 획기적인 자구책을 모색해 나갔다. 문화재청은 1972년경 새로운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바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의 지정사업 계획이었다. 이는 전통 민속자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던 것과는 달리 자연부락 전체, 즉 인문 그리고 자연환경을 포괄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구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전통적 민속마을"의 설계였다.²¹⁾ 1980년부터는 지방 민속자료의 공식 지정도 이루어진다. 이로써 마을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는데, 모든 건축물의 현상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이 종합보고서는 향후 보존사업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임의 현상변경을 판별하는 잣대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 같은 지정 및 보존사업은 곧 이어 도에서 국가 차원으로 격상되며 그 계획도 수정·변경

20) 강동진, 조직기술과 네트워크기술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1994

21) 문화재청, 1994

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민속마을을 시대와 존재양식, 문화재 관련법상, 입지에 따라, 주거양식 등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 [표-3]²²⁾과 같다.

[표-3] 전통마을의 유형

분류항목	분류된 민속마을
시대에 따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 민속마을, 삼국시대 민속마을 (고구려, 백제, 신라 민속마을) · 고려시대 민속마을, 조선시대 민속마을 (현재 대부분이 조선시대 민속마을)
존재양식에 따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 민속마을(용인민속마을, 제주민속마을) · 전통적인 민속마을(하회마을, 양동마을 등)
문화재관련법상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 낙안읍성(제302호) · 중요민속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회민속마을(제122호) 양동민속마을(제188호) 성읍민속마을(제189호) · 전통보존지구 - 왕곡마을(제1호) 외암마을(제2호)
입지에 따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읍형(도시형) · 평지형(농촌형) · 산지형 · 하천, 해안형
주거양식에 따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주거권(양동마을) · 영동주거권(하회마을) · 호서주거권(외암마을) · 호남주거권(낙안읍성마을) · 제주주거권(성읍마을) · 관동주거권(왕곡마을)

22) 홍창식, 전통마을의 문화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1996

2.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한국전통 주거건축의 규모는 목구조이므로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낮게 지음으로써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²³⁾ 고하여 건물의 외관이 보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주지 않는 형태로서 인간적 척도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통 주거 건축은 간이라 불리우는 4개의 기둥에 의해서 하나의 구체를 형성하며 수직적 공간분할 요소인 벽체와 창호, 공간 한정 의 위상적 요소인 바닥, 지붕에 의해서 입체적 개념으로서의 격자를 구성한다.²⁴⁾ 전통주거의 공간은 이 격자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대체적으로 거주자에게 시각적으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크기인 8척각이 격자공간의 기준이 된다. 주택의 방들은 양측이 외부에 접해 있어서 창과 문등 개구부의 개폐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 구성이 변화되면서 외부의 환경에 다양하게 적응되기도 하고 내부의 요구에 응하기도 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융통성을 갖게 해 주고 증정에 면해서 개방되어 있는 대청마루는 지붕이 있는 내부공간이면서 증정과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어 내부공간을 확장시키며, 외부공간이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탄력성을 보여준다.

공간의 연결

장승→작은길→마을입구→정자→고목→대문→마당→사랑채→안마당→안채→뒷마당→사당→외부

23)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p.316

24) 안재락, 한국전통 상류주택의 건축해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논문집 7집, 1984, p.127

3. 전통마을의 공공공간

전통건축 공간은 이중적공간, 외부공간, 내부공간의 연속공간의 집합체다. 물리적 기능에 의한 공간이기 전에 전통건축은 삶의 양식을 반영하여 발전, 지속되어온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서로간의 대비로 폐쇄감과 개방감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 전체는 상호 긴밀한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체간의 대립을 용인하고, 역동적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는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낸다.²⁵⁾

채와 간으로 이루어지는 전통건축은 자연을 내부화 하고 채와 채를 연결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비운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공간의 공간감을 주어 공적공간의 성격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공공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마을의 공공공간을 외부공간이면서 '공간-공간', '인간-공간', '인간-인간'의 연결고리인 길과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건물의 전면이 창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공간이 외부공간과 상호 관입되어 분리 된 것이 아닌, 한 덩어리로서 공간개념이 형성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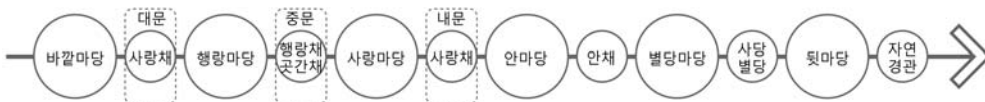
마당에서 담 너머로, 또는 지붕 너머로 수목이 잘 보이게는 하지만 마당 안까지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곳이 정원이 아니고 내부공간에서 다 하지 못하는 건축적 기능을 대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랑이나 회랑이 둘러졌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에 깊은 추

25) 권영길, 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제, p.154

26) 박양균, 전통마을과 현대적 집합주거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비교 고찰,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1997.10. p.200

녀와 함께 뒷마루가 주요 공간 주위에 둘러졌다. 전통건축에서는 건축물을 앞힘으로써 쪼개지거나 막힌 공간을 원래의 모습대로 환원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외부로의 시원한 조망을 얻고자 함이 그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간을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로 환원시킴으로써 생명력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막히고 차단되어 그 흐름이 멈춘 죽은 공간보다는 내부와 내부, 내부와 외부, 외부와 외부가 서로 통하여 끊임없이 흐르고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간 환원을 시도한 것이다. 건축물이 자연 속에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공간만은 서로 통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한국인의 자연관이 담겨있다.²⁷⁾

[그림-3] 공간의 연속²⁸⁾



■ 길

길은 주거나 건물과 접함으로서 대지로 인정이 되며 공간적 행위가 가능하다. 길을 접하며 건축물이 얹혀지고 사용자들의 진입을 유도하는 출입구가 위치된다. 여기서 어떻게 이용자들의 동선을 유도할 것인가를 고려한다. 마을의 중심이나 일터로 향하는 좁은 도로에서부터 마을 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활동의 공간이 된다. 외부로 연결되는 길은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공공영역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27)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1998, p266~269

28) 이국흠, 전통건축의 외부공간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1986, p.34

[그림-4]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길



■ 마당

우리의 전통마당은 주거건축의 형식에서 다양한 실외생활 및 보건, 위생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주고 한 주거단위에서 각 단위 공간과 간을 연결하는 실외동선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 외에도 옥외에서의 가사작업공간이나 가족의 단란, 휴식공간으로, 때로는 관혼상제의 외식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통마당의 공간은 그냥 비워져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는 의미가 부여된 상징공간 까지도 겸하는 초월성을 소유한 장소였다.²⁹⁾

[그림-5]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마당



29) 최동호, 한국전통주거공간의 마당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19095, p.2

4. 마을길과 마을마당

4.1 마을길

『길』이란 '사람, 우마, 자동차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의 일정한 너비로 뻗은 선'³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³¹⁾

- 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
- ② 항로(航路)
- ③ 도중(途中)
- ④ 시간이나 공간을 거치는 과정
- ⑤ 목표로 하는 방향
- ⑥ 방법이나 수단
- ⑦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 ⑧ 여정(旅程)
- ⑨ 방면이나 분야

우리나라에서 '길'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길'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우리 글자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초기는 '길'과 함께 이른바 'ㅎ'개입명사였다가 그 뒤 'ㅎ'첨입음이 사라지고 '길'만이 남아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³²⁾ 서양에서 '길'을 나타내는 말로서는 넓은 의미의 길, 도로, 가로의 세 가지 형태로 대표한

30) 한주성, 교통지리학, 법문사 1996, p.92

31) 엡센스 국어사전, 편집부, 민중서림

3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사, 1981, p.18

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길과 도로, 가로를 하나의 개념으로 연상할 수 있으나 세 단어는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도로나 가로는 사회적인 규정이고 또한 여기에 부과된 이름과 기능은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사용하는 두 단어인 도로와 가로는 그 의미에 있어서 양극성을 띠고 있다. 가로는 라틴어의 "to pave(포장하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그 표면이 물리적, 혹은 개념적인 길(way)과는 구별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원적으로는, 가로는 한계가 정해진 표면-양측에 건물들이 줄지어서 연장되는 특성을 갖는 도시 구조의 부분-을 나타낸다. 반면에 도로의 어원은 "ride" 이며, 이는 목적지로 향하는 이동을 암시하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통행을 암시하고 있다.³³⁾

도로는 공간과 공간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체험의 공간이다. 전통마을에서 외부공간의 모든 체험은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공공성을 표현한다.

(1) 마을길의 활동성

- 첫째, 장소와 장소간의 이동을 수반하는 목적동선을 가진 동선분배 시스템으로서의 『 이동공간 』 으로서의 기능
- 둘째, 주거상호간 또는 인접공간과의 분리를 하는 공간으로서 『 분리·완충 』 기능

33) Stanford Anderson On Street, Cambridge, M.I.T.Press, 1978, p.15
 박수국, 전통마을 공간의 동선구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p.12에서 재인용

셋째, 길의 주거의 앞마당이 되고 옥외의 휴식공간 혹은 작업공간이 됨으로서 사회적 행태를 유발하는 『사회 접촉공간』

넷째, 농사나 또는 가사와 관련된 『작업공간』을 들 수 있다.³⁴⁾

전통마을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유기적인 영역을 조직하는 마을길은 두 가지의 실제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 공동시설물로의 '이동의 통로'역할이며 둘째, 만남, 놀이, 작업등 다양한 '행위의 장소'이다. 길의 형성에는 전자(前者)가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겠으며, 후자(後者)는 형성된 길을 행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이동의 목표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동 목표점으로 마을 내부에 있는 주거의 대문을 비롯하여 정자, 마을회관, 사당 등 공동시설물을 들 수 있고, 마을 회부에 있어서는 인접마을, 농경지, 주변 산 등 자연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길의 구성은 이러한 목표점들의 위치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³⁵⁾

(2) 마을길의 위계성

마을길을 길의 중요도에 따라 위계성을 지닌다. 이점은 앞에 설명한 공공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성이다. 마을길의 위계성은 마을의 골격을 형성하고 마을길에 따라 나타나지는 공간에까지 명확한 기능구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마을길의 위계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³⁶⁾

34) 고일석, 영남지방 농촌마을의 길과 장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1992

35) 박수국, 전통마을 공간의 동선구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 큰길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로서 통과도로의 성격이 강하고 마을 내부의 연결로 적 성격은 희미하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주간선도로의 성격과 유사하다. 농촌마을에서 현재의 큰 길로 인식되는 것은 대부분이 신작로라고 불리는 도로이다. 폭이 넓은 경우나 대칭형일 때는 어귀길과 안길의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며 길을 따라 주택이 배치되기도 한다.

■ 어귀길

어귀길은 큰길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마을의 직접적인 진입로이다. 어귀길은 안길에만 연결되며 어귀길 주변에는 주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마을의 연결부인 마을어귀에 정자나무나 장승 또는 기념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는 물론 외부 내방객에게 마을에 대한 인식성을 제고시키며 마을에 진입하는 준비과정을 갖도록한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신작로가 생기면서 차량에 의한 교통이 발달되어 마을주민과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마을입구인 어귀가 쇠퇴하여 외부인에 대한 감시기능도 퇴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마을어귀의 장승이나 나무를 미신이라 하여 모두 철거해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마을들은 마을진입 준비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마을어귀를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36) 김용미, 한국 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안길

안길은 마을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마을내부의 가장 큰 도로이다. 안길은 어귀길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형 및 배치의 형태에 따라 어귀길이 없는 경우에는 큰길에서 직접 분리되어 나오기도 한다. 안길은 골목길로서의 동선을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며 마을내부 도로망의 뼈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안길은 마을전체에 공공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안길은 지형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세의 주축과 나란하게 배치되며, 특히 마을내부를 지나는 하천이 있는 경우 하천의 흐름을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마을의 도로망체계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여 배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길은 트인 골목과 혼재하면서 그 존재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마을의 주택이 매우 밀집된 집촌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아주 짧아져서 주택이 밀집된 곳까지의 내부진입도로의 성격을 갖거나, 트인 골목길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지형조건과 배치의 형태에 따라 마을이 한 덩어리로 형성되지 않고 부분별로 나뉘어질 때에는 안길이 트인 골목길과 통합되어서 마을전체가 사용하는 안길이 없어 지기도하며 각 부분별로 사용되는 큰 트인 골목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안길은 큰길 또는 어귀길에서만 갈라져 나온다는 것이다.

■ 골목길

골목길은 마을내부의 도로로서 마을의 일부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길과 연결되는 동시에 주택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트인 골목길과 주택까지의 직접적인 진입통로로서 개인적 통로의 성격을 갖는 막힌 골목길로 구분된다. 골목길은 그 수요가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평야지대의 큰 마을인 경우에는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 트인 골목길은 안길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골목길은 각 주택들의 개인 도로적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몇 채의 주택에 통로를 제공하여 마을 내의 부분적 공공도로의 특성을 갖는다.

■ 텃길

마을내의 공식적인 도로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텃길은 논둑길, 밭둑길, 산길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텃길은 주거지에서 떨어져 위치해 있는 서당·사당·제실·절·정자 등에 연결되거나 그 외에 연료의 수집이나 농사에 이용되는 작업도로라고 할 수 있다. 논둑길과 밭둑길은 각각 논과 논, 밭과 밭 사이의 경계로 설치되며, 그 둑의 높이로 하여 농작물에 대한 방풍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둑 양쪽에 농업용수를 흐르게 하는 수로의 역할도 한다. 텃길은 비록 주택으로의 진입기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골목길이나 안길과 연결되어 각 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4.2 마을마당

마당이란 말은 맛, 만, 문과 관련되는 말로 만-포, 만-물으로 육지와 관련되고 문은 무덤으로 지(地), 토(土)전(田) 즉, 땅의 의미로 사용되고 당은 장(場) 즉 장소(場所)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당은 땅에 있는 장소, 즉 외부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활동과 생활을 담는 기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³⁷⁾

전통공간에서 건물의 영역 외 마당은 동네마당, 우물마당, 작업장, 나무그늘 및 공공마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농촌사회에서는 주로 마을 마당이 모임 및 공연의 장소가 되어왔다. 마당은 장터와 같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나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소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은 부락민의 경제기관인 동시에 오락기관도 되며 따라서 부락민의 생활은 장(場)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마을마당은 동네의 공동작업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마당놀이를 행하였던 놀이마당의 기능도 수행했으며, 일마당이 놀이마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놀이는 집단적인 신명과 현실적인 상황, 나아가서는 독립적인 표현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며, 또한 놀이의 성격에 의해 마당의 공간적인 활용이 달라지게 된다. 놀이마당은 타작마당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수반되는 장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간개념으로 우리의 전통적 관념은 마당이라거나 대청과 같은 거주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라거나 장터, 광장, 심지어 산과 들판까지 포함한다.³⁸⁾ 마을마당은 한 가구단위나 가족단위의 전용공간으로서의 주택

37) 우경국, 조선시대 주택마당에 관한 연구, 환경과 조경, 1985, p89

38) 장태현, 도시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58

마당과는 달리 마을 전체 주민이 활용하고 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행하면서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1) 마을마당의 활동성

■ 작업의 기능

과거의 전통마을에서는 농경생활을 주생활로 하였는데 생산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에는 공동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의 기능으로서의 마을마당이 형성되었다.

■ 의례의 기능

마을마당에서는 마을의 공동제례가 행해지기도 하는데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당집을 세우기도 하며 이곳에서 마을의 변영과 제약, 초복 등을 위한 동제가 행해졌었다. 이로 인하여 마을마당은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제의와 축제와 행상의 장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것이다.³⁹⁾

■ 놀이의 기능

마을마당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모여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마을의 행사를 행하면서 전통 놀이를 통한 마을의 축제를 벌이기도 하며 유희의 기능을 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로는 건축물 뿐 만이 아닌 숲

39) 김학범, 장동주, 마을숲-한국전통부락의 당숲과 수구막이, 열화당, 1994, p.18

이나 강가 등 자연환경 자체가 마을마당의 의미를 가진다.

■ 휴식의 기능

마을마당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입지에 조성되어 경치를 조망하거나 생업을 마친 마을주민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는 기능을 한다. 희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자체도 포함한다.

(2) 마을마당의 장소성

마을마당에서 장소성을 갖게 하는 요소는 환경적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외부공간은 이 경계요소의 의도적 계획에 따라 공간감을 부여하게 된다. 공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마을마당의 구성요소를 분류할 수 있다.

1) 수직적 분류

시지각적 인지 대상으로서의 공간인지의 가장 주된 요소는 둘러싸임에 있고, 둘러싸임의 우세요소는 건물, 담장 등의 수직요소이며, 마당의 폐쇄·개방성은 이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⁴⁰⁾ 외부 공간 형성의 요소인 담장은 시각의 한계점 없이 무한히 전개되는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하거나⁴¹⁾ 동선 및 통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바람, 소음, 일광 등 자연현상에 대한 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역성을 확보하

40) 정무웅,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의 단계적 질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41) 선우정우, 한국전통주택 마당의 척도·비례 분성을 통한 폐쇄성 및 개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공간확보 요소는 개방성을 필요로 하는 마을마당의 특징에 의해 장소적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로 기능한다.

2) 수평적 분류

마을마당을 정하는 수평적인 바닥면을 이용한 분류이다. 바닥면의 포장의 재료나 형태에 따라 공간을 한정한다. 또한 단면적으로 평탄한 장소와 경사진 장소에서 공간은 달리 한정된다.

3) 수식적 분류

마을마당의 분류에서 공간인지에 대한 시각적인 확실함을 주기 위한 수식적요소로는 수목, 정자, 솟대, 장승, 바위, 등 장소성과 공간감을 높여주는 요소에 의한 분류이다.

IV. 공공성 사례 검증 및 분석

1. 대상지 선정

1.1 마을의 유형

택리지에 의하면 살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는 둘째,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셋째로 인심이 좋아야 하고, 넷째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마을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지리적특성이다. 또한 마을의 형태는 그것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의 자연적 환경,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조건, 주민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마을의 유형을 크게 나누면 형태적인 요소와 사회기능적 요소로 대변할 수 있다.⁴²⁾

1.2 대상지 선정기준

우리나라에서의 촌락구성단위인 부락은 1933년 선생영조(善生永助)의 조사에서 약 70,000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동족부락은 약 15,000여개로 나타났다.⁴³⁾ 1978년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락의 수는 64,390개⁴⁴⁾로서 약 50여 년이 지나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42) 이정훈, 전통마을 길마당의 시지가 차폐도 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석사학위논문, p.8

43)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85

44) 경제기획원, 한국 통계 연감, 1979, p.19, 김근교,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6에서 재인용

나고 있다. 이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마을 중에서 전통마을 선별하고, 선별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조건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한다.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동족부락으로서 입지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둘째, 사적지 혹은 문화적 전통을 지닌 마을로서 지정된 마을이어야 하며 농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공간구조가 전통건축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손상이 적어 원형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넷째, 마을에 독특한 문화·생활양식이 있어야 한다.

전통마을이란 그곳에 몸담고 있어 왔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어린 곳으로 그곳 특유의 전통문화를 간직하며 후손들이 조상들의 향기와 얼을 느낄 수 있는 마을⁴⁵⁾로 정의되는데, 1960년대 초반부터 전통문화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인 보존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에는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에 남아 있는 한옥군에 대한 보존방안이 추진되었다.⁴⁶⁾ 이에 총체적인 전통문화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민족의 원류와 생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민족적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⁴⁷⁾ 몇몇 마을들을 전

45) 김근교,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13

46) 김미진, 도시내 한옥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47) 문화재관리국,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통마을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중요민속자료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마을로는 안동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122호),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188호), 월성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189호), 고성왕곡마을(중요민속자료235호), 아산외암마을(중요민속자료236호)이 있다.⁴⁸⁾

이외에도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높아 전통문화마을로 지정된 37개의 마을⁴⁹⁾과 마을공간의 체계적인 구조질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의 대상⁵⁰⁾이 되고 있는 전통마을 등이 있다. 이러한 마을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스케일 1:5000의 지형도를 통하여 지리적 특성을 평지형, 구릉지형, 산지형으로 분류하고 이중 원형 보존이 잘 되어있고 공통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 마을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평지형의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122호), 산지형의 경상북도 월성군 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189호), 구릉형의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마을(중요민속자료236호)을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원형이 잘 보존된 전통마을을 통하여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을 분류,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48) 문화재청

49) 문화체육부, 전통문화마을 보존·전승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 1994, p.28

50) 한국향토사연구 전국 협의회, 한국의 전통마을

2.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외암마을

2.1 안동하회마을

[그림-6] 부용대에서 바라본 하회마을



■ 마을의 입지

하회마을의 지형은 낮은 지대의 평지에 위치한 들·벌판형이다. 낙동강 줄기가 이 마을을 끼고 돌면서 S자형으로 돌아 흐르고 있으며 강 건너 남대안(南對岸)에는 영양 일월산 지맥인 남산이 있고, 마을 동쪽으로 태백산의 지맥인 해발 271m의 화산(化山)이 있다. 이 줄기의 끝이 동네까지 뻗쳐 손등과 같은 아주 낮은 구릉(해발 90m)을 이루고 있다. 이 낮은 구릉형상의 골을 따라 주택들이 세워져 있고 길도 골에 따라 통하고 있다. 즉 자연환경의 경사에 의해 주택과 길들이 구획되어져 있다. 주택들은 중앙의 능선을 등으로 하고 외곽지대로 향하여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모든 좌향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주택과 촌락을 연과지어 볼 때 집결상태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일부 반영

하는 듯 보이는데, 촌락의 중심부를 류(柳)씨들이 자리 잡고, 각 성(과거 노비의 연고자 포함)은 변두리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가옥의 대부분도 류(柳)씨의 소유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회마을은 마을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에 의해 크게 북촌과 남촌으로 나누어진다. 북촌은 겸암 류운룡댁인 양진당이, 남촌은 서애 류성룡댁인 충효당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후에 서애파가 겸암파보다 사회적 지위를 더 얻게 되면서 6대손에 이르러서는 북촌댁과 남촌댁이 각각 세워지게 된다. 이후 하회마을은 북촌은 양진당과 북촌댁이, 남촌은 충효당과 남촌댁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가람군들이 위치하여 마을 전체구조로 보면 사등분으로 나누어진 주거군의 형태를 보인다.⁵¹⁾ 하회마을 주변의 고도분석, 향분석, 경사분석을 통하여 보면 대부분의 지형이 완경사지로서 0~5%의 경사가 59.23%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향은 평지가 41.01%, 북서향이 10.01%로 분포하고 있다. 반가의 향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서향(3채)와 남동향(3채)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촌댁과 남촌댁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풍수적인 입지의 고려에 의하여 주택의 향이 결정 되었다기보다는 조망점이나 경관을 중심으로 주택의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마을의 풍수지리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태극 모양으로 돌아 흐른다 하여 하호, 혹은 물도리동이라 하며 풍수지리상 태극형인 연화부수형의 길지로 꼽는 중요 전통마을이다. 또는 배가 떠나는 형국인 행주형의 형국이라고도 본다.

51) 장영우,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6

행주형의 형국은 사람과 재물이 가득해서 출발하려 하는 배를 멈추어 두는 의미로서 이 형의 형국에는 사람 및 재화가 풍성히 모인다고 보는 형국이다. 또한 연화부수형의 형국은 자손이 화려한 생화를 하게 된다는 형국으로 하회는 이 두 가지의 형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명당이라고 보인다. 우선 하회의 산세부터 보면, 안산인 화산자락의 매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의 취락형태가 원형이어서 태극형의 길지인 하회마을은 형국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화산은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있는 영양의 주산인 일월산의 한 지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낙동강과 만나면서 머무른 나지막한 산이다. 산의 지맥은 마을에 이르러 이미 상당히 약화되고 아래쪽은 들을 이룰 정도로 기울기가 아주 완만하고 지맥도 평탄하게 흩어진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화산의 지맥이 지금의 충효당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며 양진당까지 와서 멎었다고 말한다. 풍수지리에 있어 마을의 터 잡기의 기본은 배산임수이다. 하지만 하회의 경우 기본적인 배산임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형국과 방위가 지니고 있는 생기에 의해 길로 꼽고 있는 것이다. 하회는 마을의 가운데가 가장 높고 가장자리고 갈수록 나지막하다. 그렇다면 하회의 마을도 기본 풍수지리의 전저후고를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을의 가장 높은 곳을 등지고 화천을 바라보는 집도 있고, 산을 바라보고 있는 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샷갓을 얹어놓은 형국의 터여서 집의 방향이 제각각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길 역시 집의 방향과 마을 터의 형국에 따라 방사선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2.2 월성양동마을

[그림-7] 양동마을 전경



■ 마을의 입지

양동리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에 속하며 포항과 안강을 잇는 국도변에 위치한다. 또 산중턱의 경사지에 위치한 산허리에 입지하고 있다. 부락의 북서쪽으로는 설창산이 뒷배경이 되고 남동쪽으로 성주봉이 앞쪽에 놓여져 있으며 서쪽은 안락천과 면하는 절벽을 이루고 있다. 부락의 서쪽에는 북에서 흐르는 안락천과 남에서 흐르는 형산강이 합류하여 동해로 빠지는데, 이 서쪽능선위에서는 간혹 홍수가 일어날 때면 바다로 화한다는 경지정리가 잘된 안강평야를 조망할 수 있다. 가옥들은 부락을 둘러싼 능선들이 물(勿)자를 이룬 한 줄기마다 각기 고저의 차이를 두고 둘러져 있는데, 여름철에서는 숲에 가려 집들이 잘 안 보일 정도다. 이 부락에는 200여년 이상 된 전통의 색이 창연한 고택들이 20여채 가량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능선 위 고지에 자리 잡고 있어 저지대의 가옥들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대부분의 “口” 자형 고가주위 또는 아래쪽에는 여러 채의

초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초가들은 원래 가람집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것만 보아도 반상의 차별적인 신분구조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⁵²⁾ 양동마을 주변의 경사는 안강평야를 주위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평지형인 0~5%가 57.73%로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이 위치한 지형을 주위로 5~10%의 경사도가 32.34%로 나타난다. 또한 향은 북동향이 13.76%, 동향이 11.75%, 북서향이 11.37%로 대부분이 동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양동마을 반가의 향은 서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향과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의 진입향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입지가 산지형으로 인하여 진입향이 자연 지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마을의 풍수지리

양동마을은 '물(勿)'자형의 형국으로 문자형의 형국에 속한다. 이 형국은 손소(孫昭)의 집터를 잡아 준 풍수사가 기름진 땅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물(勿)'자형의 능선을 따라 내려온 산비탈에 자리를 정해주었다 한다. 풍수사는 이 집터에서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의 말대로 손소의 아들 중 이 조판서를 지낸 청백리 손중돈이 나왔고 동방 5현 중의 한 사람인 이언적 또한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 명당의 형국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두 집안을 경쟁관계에 있도록 만들었다. 옛날의 명당터 다툼에서부터 지금의 자녀교육을 통한 경쟁에 이르기 까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한 편이었다. 또한, 두 가문의 대립관계는 마을 내의 주택배치에서도 나타난다.

52)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p.18

2.3 아산외암마을

[그림-8] 외암마을



■ 마을의 입지

외암마을의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일구 속칭 외암골에 있다. 이 마을은 온양에서 남쪽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설화산(雪華山) 동남록의 산간분지로 구릉사이 골짜기 아래의 완사면에 위치한 구릉비탈형의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거의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주위에는 작은 여러 개의 구릉에 기대인 전답으로 이어졌다. 부락이 점하고 있는 면적은 약 40,000여 평으로 마을 중심의 표고는 해발 60m 정도이다. 주변지세를 보면 마을의 남쪽으로는 설운산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냇물이 마을을 감싸고 돌아와 동구에서 강당골 쪽으로부터 흐르는 냇물과 합쳐져 평촌방향으로 흐른다. 마을과 주면일대의 배후산인 설운산은 온양과 송악, 배방면 일대를 내려 보고 있으며,

화산이었던 설화산에서 후기에 용출한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주변 일대엔 화강암질의 돌이 많다.⁵³⁾외암리 주면의 경사는 0~5%가

44.7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0~15%의 경사가 21.33%, 5~10%의 경사가 19.27%로 나타났다. 향은 북동향과 동향이 각각 19.12%와 10.87%로 동향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가의 향은 남향과 서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입지가 설화산에서 서남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 마을의 풍수지리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광덕산의 남쪽과 북쪽에 긴 골이 매우 많은데, 절과 암자만이 골짜기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골짜기 마다 여염집과 밭고랑이 서로 뒤섞여서 긴 숲과 담수 위에 숨바꼭질하듯 하니, 완연한 하나의 도원도(挑園圖)이다.』 하여⁵⁴⁾ 광덕산일대의 산수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하였다. 외암리의 주산은 설화산이다. 안산은 마을 건너에 있는 들에 약간 솟아 오른 언덕인 바람동산이 되고, 조산은 서쪽의 황산이라는 설과 남쪽의 광덕산이라는 설이 있는데, 설화산과 마을의 중심에서 보면 서쪽의 황산이 정면의 시야에 들어옴으로서 황산을 조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청룡(靑龍)은 설화산에서 마을 왼쪽의 하천 건너 열성지기들 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이다. 백호(白虎)는 외암(巍巖)의 묘가 있는 삼성댕이골로 내려오는 낮은 능선이 되는데, 이 능선에 의해 이웃 마을과 구분된다. 이 능선은 완사명산의 고도가 낮게 내려오다가 말단부에서 고도를 약간 높여 고립 구릉을 형성한다. 또한 백호에는 동수를 심어 비보(裨補)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고립 구릉의 중심에 외암의 묘소가 있다. 태조산은 광덕산

53) 세한건축사사무소, p.11

54)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p.173

이고 광덕산은 차령산맥에서 갈라져 나오며, 남쪽 멀리 위치한다. 설화산의 산형은 탐랑성으로 크게 목성에 해당된다. 설화산은 붓 끝 같은 봉우리가 솟아 있어서,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이 산이 비치는 곳에는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⁵⁵⁾ 배후의 여유 토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치우쳐 촌락이 입지하는 것은 풍수적인 면에서 백호의 고도가 낮으므로 촌락이 조금만 북쪽으로 이동하여도 장풍의 이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신사에 의해 영역성이 확보되고 생기가 모일 수 있는 보다 낮은 고도에 촌락을 입지시킨 것이다. 내수는 두 곳에서 돈다. 설화산 계곡에서 시작되어 마을 입구로 흘러 나가는 물과, 다른 하나는 이 동네에서 반석다리 큰물이라 부르는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계곡에서 시작되는 물은 마을의 북동쪽에서 시작되어 마을 남쪽을 감싸면서 서쪽으로 흐르고, 반석다리 큰물은 마을 남쪽 강당골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흐르다가 마을 입구의 반석교에서 두 물이 합쳐져 북서쪽으로 흐른다. 이 마을의 수는 오른쪽으로 흘러가므로 양수음래격이 되어 길하다. 설화리는 설화산-외암골 축의 중심을 벗어나 외암골의 하곡 입구에 위치한다. 이는 설화산에서 외암골로 들어오는 입수의 맥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지맥을 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설화산-외암골 축에 설화리가 입지하면 외암골 상단에 위치하는 종가와 마을 전체를 굽어보는 위치가 되므로, 이를 피했다.⁵⁶⁾

5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4, p.150

56) 심혜자, 촌락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풍수지리적 특징,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3.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

3.1 마을길의 공공성 분석기준

3.1.1 위계성에 따른 분석기준

위의 이론적 고찰에서 마을길은 큰길, 어귀길, 안길, 골목길, 텃길의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축소되고 소멸되거나 중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길의 위계를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로 정하고 그에 따른 분석기준을 정한다.

[표-4] 마을길의 위계성

위계성	기준
동구길	마을의 진입에 위치
동네길	마을 내, 외곽에 위치
골목길	동네길과 동네길사이 동네길과 집사이

3.1.2 활동성에 따른 분석기준

마을길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이는 사용자의 활동의 공간이 된다. 마을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성을 행사, 만남, 이동, 경계로 정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5] 마을길의 활동성

활동성	기준
행사	행사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길
만남	마을 주민의 만남의 횟수가 빈번한 길
이동	목적지로 이동하는 길
경계	마을의 경계나 집의 경계를 구분하는 길

3.1.3 연속성에 따른 분석기준

마을길에서는 길과 길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이 형성된다. 이에 따른 길의 변환점이 세갈래, 네갈래로 나뉜다고 보고 마을길을 분석한다. 또한 마을길의 길이와 폭이 길의 위계에 따라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연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6] 마을길의 연속성

연속성	변환방법	길이	폭
분기점	세갈래 네갈래	0~120	0~10
교차점		121이상 10m간격	10이상 1m간격

3.2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기준

마을마당은 길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곳이면서 5명이상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모임이 가능한 곳에 위치한다. 또한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요소들로 분류한다.

[표-7] 마을마당의 공공성

공공성	기준
형성과정	인위적, 자연적, 진화적
활동성	의례, 작업, 놀이, 휴식
장소성	공간제한요소, 지형요소, 수식적요소

3.2.1 형성과정에 따른 분석기준

본 논문에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공공공간의 형성과정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분석기준을 정립한다. 마을마당의 형성과정분류에 따라 인위적, 자연적, 진화적으로 나누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8] 마을마당의 형성과정

형성과정	기준
인위적	세심하게 계획된 공간
자연적	의도적인 계획이 없는 공간
진화적	진화, 변용된 공간

3.2.2 활동성에 따른 분석기준

마을마당은 마당을 사용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9] 마을마당의 활동성

활동성	기준
의례	마을의 제례 의식장으로 활용하는 마당
작업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마당
놀이	놀이를 행하는 마당
휴식	경관조망이나 여가를 위한 마당

3.2.3 장소성에 의한 분류

마을마당은 진입도로 폭보다 넓은 면적을 지니면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기능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장소로서 인식 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한 분류이다. 이는 공간제한요소, 지형요소, 수식적 요소로 나뉘서 기준을 정한다.

[표-10] 마을마당의 장소성

장소성	기준
공간제한요소	건물, 담, 길, 강, 숲
지형요소	평지, 경사지
수식적 요소	수목, 정자, 솟대, 장승

4. 사례분석

4.1 마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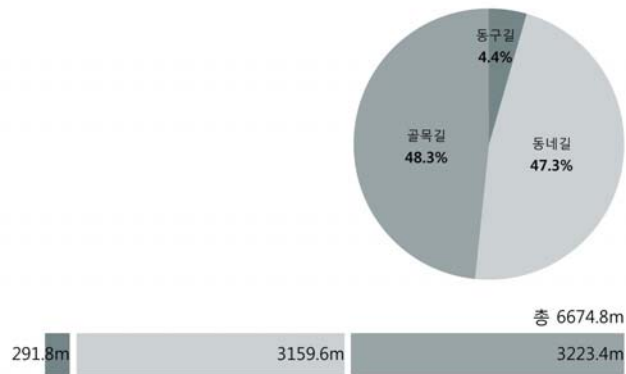
4.1.1 위계성 분석

공간 내에서 우세함과 중요도를 지니는 위계성은 서로 다른 영역이 교차되는 공간에 형성되고 순위에 따라 배열할 수 있다. 마을길의 위계는 위치와 길의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마을의 위계는 마을 진입에 위치하는 동구길과 마을 내,외곽에 위치하는 동네길, 동네길과 동네길, 동네길과 집사이를 연결하는 골목길로 분류하고 지형도를 통한 분석을 한 후 수치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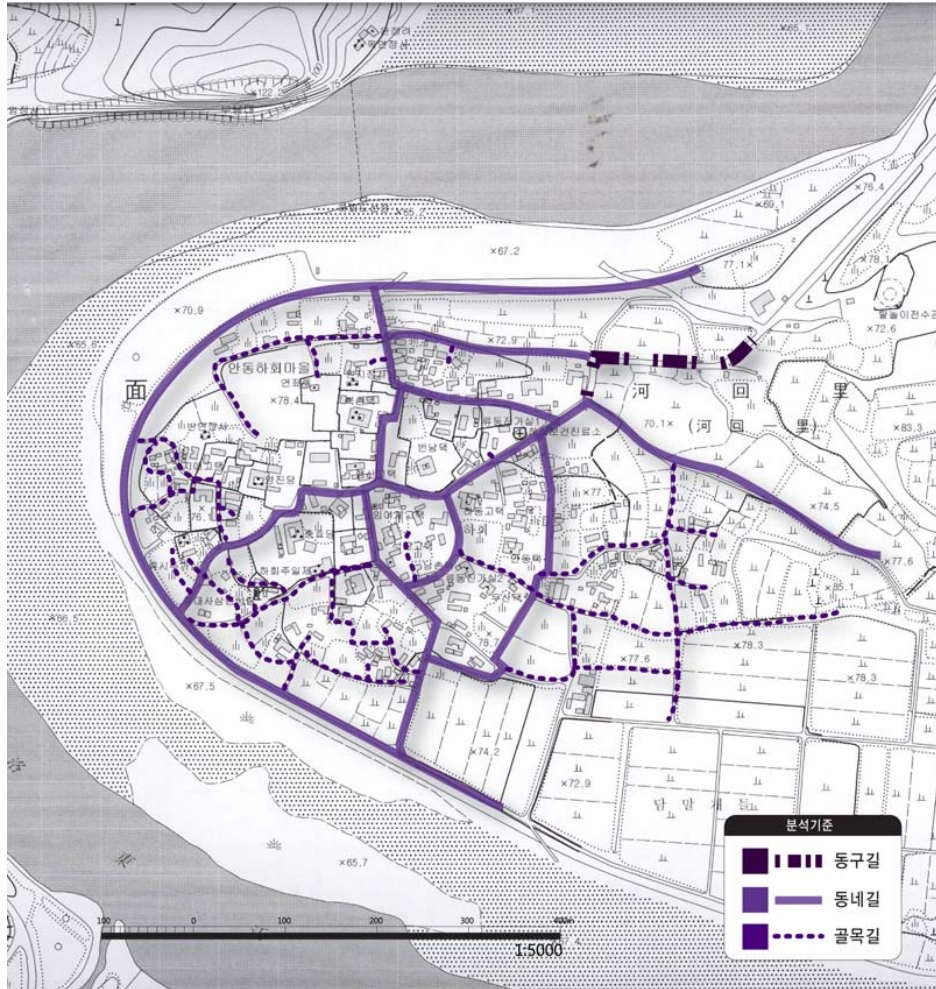
(1) 하회마을

하회마을의 길은 총 6674.8m로 동구길이 291.8m, 동네길이 3159.6m, 골목길이 3223.4m로 분포한다.

[그림-9] 하회마을길의 분포



[그림-10] 하회마을길



하회마을길의 분포도를 보면 동구길 4.4%, 동네길 47.3%, 골목길이 48.3%로 나타난다. 이 결과 하회마을길의 특징은 골목길과 동네길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양동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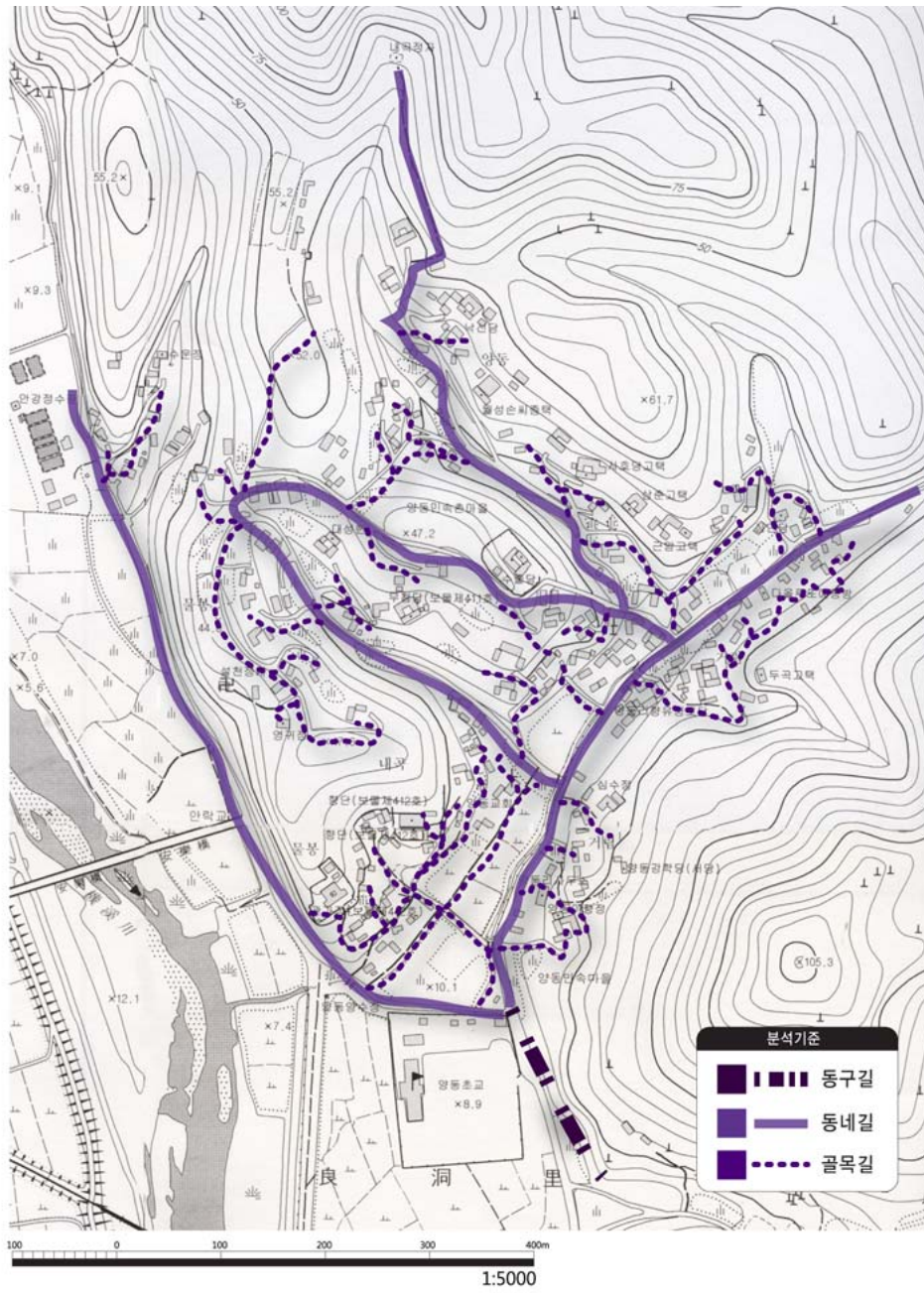
양동마을의 길은 총 10530.6m로 동구길이 206.6m, 동네길이 3485.7m, 골목길이 6838.3m로 분포한다.

[그림-11] 양동마을길의 분포



양동마을길의 분포도를 보면 동구길 2.0%, 동네길 33.1%, 골목길이 64.9%로 나타난다. 양동마을길은 골목길의 비중이 64.9%로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정 마을의 마을길 중 총 길이가 가장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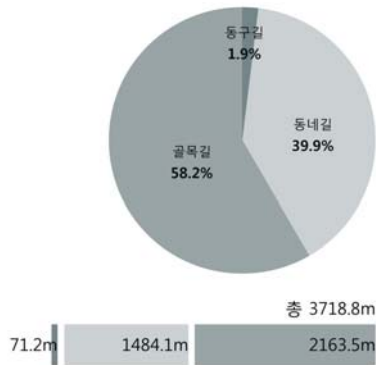
[그림-12] 양동마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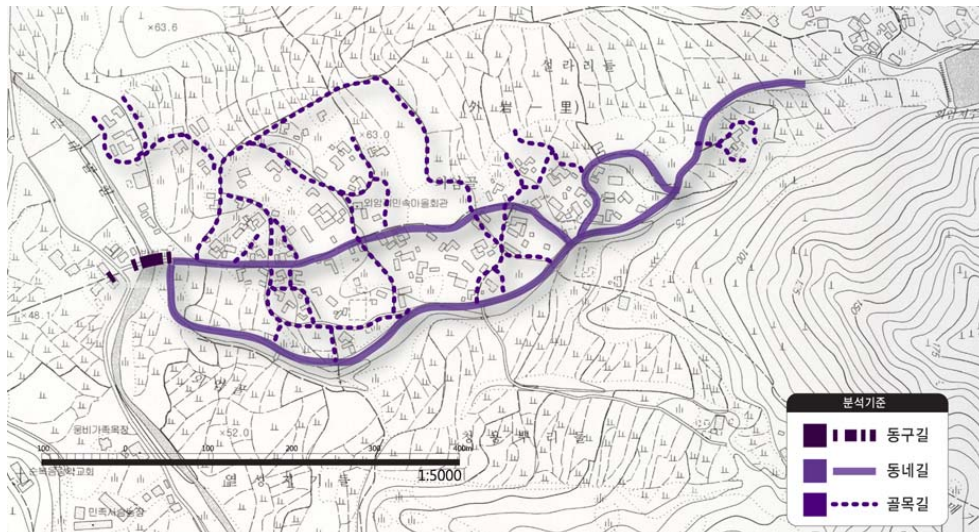
(3) 외암마을

외암마을의 길은 총 3718.8m로 동구길이 71.2m, 동네길이 1484.1m, 골목길이 2163.5m로 분포한다. 외암마을길의 분포도를 보면 동구길 1.9%, 동네길 39.9%, 골목길이 58.2%로 나타난다. 외암마을길은 다른 선정마을에 비해 규모가 작아 전체길이가 작다. 또한 동네길에 비해 골목길의 비중이 높지만 양동마을에 비해서는 적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13] 외암마을길 분포



[그림-14] 외암마을길



4.1.2 활동성 분석

마을길은 주민들의 이용행태를 활동성을 행사, 만남, 이동, 경계로 나누어 분석기준을 정하고 마을길의 분포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회마을

[표-11] 하회마을길의 활동성

활동성	행사	만남	이동	경계	총길이
동구길	291.8m (100%)	.	.	.	291.8m 4.4%
동네길	.	808.3m (25.6%)	1839.4m (58.2%)	511.9m (16.2%)	3159.6m 47.3%
골목길	43.4m (1.3%)	827.0m (25.7%)	2289.2m (71.0%)	.	3223.4m 48.3%
구성비	335.2m 5.0%	1635.3m 24.5%	4128.6m 62.8%	511.9m 7.7%	6674.8m 100%

하회마을길의 위계에 따라 활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길의 전체분포 중 이동의 비율이 62.8%로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의 활동성을 보였다. 위계별 활동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구길은 전체 6674.8m중 291.8m로 4.4%를 차지한다. 그리고 동구길에서는 마을 행사의 기능이 주로 나타났다. 동네길은 3159.6m로 전체 길의 구성에서 47.3%를 차지했고 이중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25.6%, 이동통로의 활동성의 비율이 5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변지역과의 경계의 요소로의 사용도 16.2%로 나타났다. 골목길은 전체길이 중 48.3%를 차지했고 행사사용도로 1.3%, 만남은 25.7%로 동네길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동이 71.0%로 주된 활동성을 보였다.

(2) 양동마을

[표-12] 양동마을길의 활동성

활동성	행사	만남	이동	경계	총길이
동구길	206.6m (100%)	.	.	.	206.6m 2.0%
동네길	631.0m (18.1%)	338.7m (9.7%)	1230.6m (35.3%)	1285.4m (36.9%)	3485.7m 33.1%
골목길	.	2162.5m (31.6)	4675.8m (68.4%)	.	6838.3m 64.9%
구성비	837.6m 8.0%	2501.2m 23.7%	5906.4m 56.1%	1285.4m 12.2%	10530.6m 100%

양동마을 역시 전체 길의 활동성중 이동의 비율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계별 활동성을 살펴보면 동구길은 전체비율에서 2.0%로 작게 분포하며 행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동네길은 33.1%의 비율로 나타나며 다양할 활동성이 고루 분포한다. 양동마을의 동네길은 행사의 비율이 18.1%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짧은 동구길의 영향으로 동네길 입구에서도 행사의 활동이 공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계의 비율이 36.9%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산악지형의 영향으로 골목길과 연계되어 각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길의 구성 중 골목길이 64.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지형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골목길에서는 이동의 활동성이 주로 나타난다.

(3) 외암마을

[표-13] 외암마을길의 활동성

활동성	행사	만남	이동	경계	총길이
동구길	71.2m (100%)	.	.	.	71.2m 1.9%
동네길	140.4m (9.5%)	.	898.8m (60.6%)	444.9m (29.9%)	1484.1m 39.9%
골목길	.	1772.5m (81.9%)	391.0m (18.1%)	.	2163.5m 58.2%
구성비	2116m 5.7%	1772.5m 47.7%	1289.8m 7%	444.9m 11.9%	3718.8m 100%

외암마을길의 활동성은 만남과 이동이 주로 나타나는데 만남의 비율이 4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동구길에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행사가 주로 나타나고 동네길에서는 만남의 기능이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만남의 활동성은 골목길에서 8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동네길은 주로 이동의 기능을 보였다.

4.1.3 연속성 분석

공공성중 연속성은 개방성과 연계성, 접근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을 길의 길이와 폭 그리고 길과 길의 변환방법에 따라 연속성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분석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회마을

1) 변환방법

[표-14] 하회마을길의 변환방법

위 계	장소계	변환방법			
		분기점		교차점	
		세갈레	네갈레	세갈레	네갈레
동구길	2	1	.	1	.
동네길	39	17	.	17	5
골목길	27	6	.	20	1
총계	68	24	.	38	6

길의 연속성은 편리성과 함께 개방성, 연계성의 다양한 공공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회마을길의 변환방법은 동네길에서는 분기점과 교차점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골목길에서는 교차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이는 동네길은 이동과 만남의 활동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교차점과 분기점이 고루 분포하며, 골목길은 주로 이동의 활동을 보이므로 교차점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분기점과 교차점은 세갈레로 많이 나타난다.

2) 길이 분포

[표-15] 하회마을길의 길이 분포

위계 길이(m)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장소계
0-10	.	.	2	2
11-20	.	6	9	15
21-30	.	3	14	17
31-40	.	8	6	14
41-50	.	2	11	13
51-60	.	5	6	11
61-70	.	5	6	11
71-80	.	5	8	13
81-90	.	1	1	2
91-100	.	2	1	3
101-110	.	1	1	2
111-120	.	1	1	2
121이상	1	6	1	8
합계	1	45	67	113

하회마을의 대부분의 마을길의 길이는 11~80m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도로폭은 3.3m로 나타났다. 마을길은 21~30m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동구길은 120m의 긴 길이를 보이는데 이는 많은 사람에게 개방감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연속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3) 폭 분포

[표-16] 하회마을길의 폭 분포

위계 길이(m)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장소계
0-1	.	.	8	8
1-2	.	2	24	26
2-3	.	7	15	22
3-4	.	7	11	18
4-5	.	8	5	13
5-6	.	11	3	14
6-7	1	7	1	9
7-8	.	3	.	.
8-9	.	.	.	3
9-10
10이상
합계	1	45	67	113

또한 동네길과 골목길은 다양한 길이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길의 다양한 활동성에 의해 연속성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을길의 폭은 대부분 1~6m에 분포하며 1~2m의 폭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동구길은 6~7m, 동네길은 4~6m, 골목길은 1~3m로 분포하는데 이는 길의 위계를 폭에 따라 달리 하기 때문이다.

(2) 양동마을

1) 변환방법

[표-17] 양동마을길의 변환방법

위 계	개수	변환방법			
		분기점		교차점	
		세갈레	네갈레	세갈레	네갈레
동구길	1	1	.	.	.
동네길	43	14	10	11	8
골목길	43	12	10	12	9
총계	88	27	20	23	17

양동마을길은 분기점과 교차점이 고루 분포한다. 또한 각각의 요소에서 세갈레, 네갈레 형태 또한 고루 나타난다. 이는 지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변환형태는 주거지로 가기 위한 분기점이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동하기 위한 교차점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길이 분포

[표-18] 양동마을길의 길이 분포

위계 길이(m)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장소계
0-10	.	1	36	37
11-20	.	3	44	47
21-30	.	7	33	30
31-40	.	4	16	20
41-50	.	6	17	23
51-60	.	4	12	16
61-70	.	2	2	4
71-80	.	4	1	5
81-90	.	.	3	3
91-100	.	1	4	5
101-110	.	6	6	13
111-120	.	1	4	5
121이상	1	7	9	17
합계	1	47	177	225

3) 폭 분포

[표-19] 양동마을길의 폭 분포

길이(m) \ 위계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장소계
0-1	.	1	19	20
1-2	.	3	69	72
2-3	.	4	53	57
3-4	.	17	27	44
4-5	.	13	5	18
5-6	1	9	2	12
6-7	.	.	1	1
7-8	.	.	1	1
8-9
9-10
10이상
합계	1	47	177	225

양동마을의 길이는 0~60m에 분포하며 평균 도로폭은 2.9m이다. 양동마을길은 11~20m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구길은 하회마을과 마찬가지로 120m 이상의 긴 길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네길과 골목길은 다양한 활동성과 함께 다양한 길이를 보인다. 또한 산지형의 마을로 길의 길이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길의 폭은 대부분 1~6m 폭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동구길은 5~6m, 동네길은 3~6m, 골목길은 1~2m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형으로 다른 대상마을에 비해 마을길의 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외암마을

1) 변환방법

[표-20] 외암마을길의 변환방법

위 계	개수	변환방법			
		분기점		교차점	
		세갈레	네갈레	세갈레	네갈레
동구길	2	2	.	.	.
동네길	20	15	1	1	3
골목길	15	4	.	7	4
총계	37	21	1	8	7

외암마을의 마을길 변환방법은 주로 분기점으로 나타난다. 이는 마을의 규모가 다른 마을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네길은 주로 세갈레 분기점으로 이루어 졌으며 골목길은 분기점과 교차점이 고루 분포하였다.

2) 길이 분포

[표-21] 외암마을길의 길이 분포

위계 길이(m)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장소계
0-10
11-20	.	.	1	1
21-30	.	.	9	10
31-40	.	.	12	14
41-50	1	1	8	11
51-60	.	2	3	7
61-70	.	.	4	4
71-80	.	.	1	2
81-90	.	.	1	3
91-100	.	.	1	1
101-110	.	3	2	5
111-120	.	2	2	5
121이상	.	1	.	1
합계	1	9	44	64

3) 폭 분포

[표-22] 외암마을길의 폭 분포

위계 길이(m)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장소계
0-1	.	.	1	1
1-2	.	1	4	5
2-3	.	1	11	12
3-4	.	3	9	12
4-5	.	3	5	8
5-6	1	2	11	15
6-7	.	3	.	3
7-8	.	3	.	3
8-9	.	2	.	2
9-10	.	.	2	2
10이상	.	.	1	1
합계	1	18	44	64

외암마을길은 주로 21~120m로 나타나고 평균 도로폭은 4.4m이다. 다른 대상마을과는 달리 동구길의 길이가 41~50m로 짧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을의 입구에서 마을까지의 길이가 짧은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지만 동네길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 전체에 고루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0m이상의 긴 길이를 보이고 있으며 골목길은 21~50m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마을길의 폭은 대부분 1~6m에 분포하며 5~6m폭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골목길의 폭도 다른 대상마을과는 다르게 1~6m로 다양하고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마을 내부의 공간 배치 특히 마을마당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2 마을마당

4.2.1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

공공공간의 형성과정 분류에 따라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 중 형성과정에 따른 분류는 인위적, 자연적, 진화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마을별 형성과정에 따라 마을마당을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하회마을

[표-23] 하회마을마당의 형성과정

대상 마을	장소	면적(m ²)	형성과정		
			인위적	자연적	진화적
하 회 마 을	1. 삼신당	392.5			○
	2. 빈연정사	916.0	○		
	3. 숲	9075.5		○	
	4. 양진당	157.7	○		
	5. 충효당	1314.3	○		
	6. 복춘택	410.2	○		
	합 계	12266.2	4/6 66.0%	1/6 16.7%	1/6 16.7%

하회마을은 다른 대상마을에 비해 마을마당의 개수가 적다. 이는 마을의 입지적 조건이 하천과 넓은 숲에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마을마당의 형성보다는 자연을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15] 하회마을마당



[그림-16] 하회마을마당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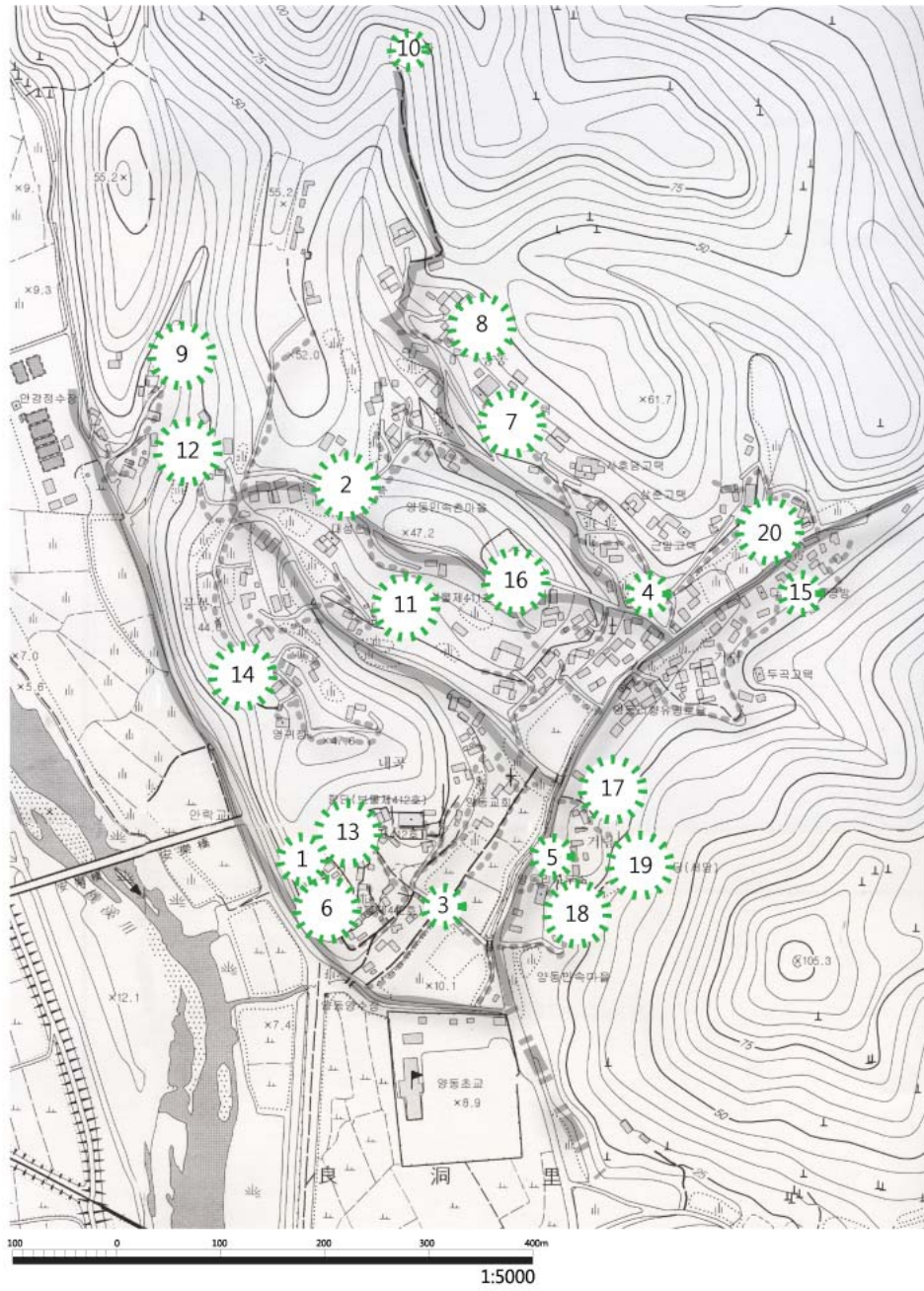
(2) 양동마을

[표-24] 양동마을마당의 형성과정

대상 마을	장소	면적(m ²)	형성과정		
			인위적	자연적	진화적
양 동 마 울	1. 은행나무	608.4		○	
	2. 당목	450.7		○	
	3. 우물터	99.5	○		
	4. 방아터	21.2	○		
	5. 안락정	421.1	○		
	6. 관가정	1420.5	○		
	7. 손동만가옥	2162.9	○		
	8. 낙선당	1238.3	○		
	9. 수은정	371.3	○		
	10. 내곡정	326.2	○		
	11. 무침당	665.5	○		
	12. 경산서원	715.4	○		
	13. 향단	224.8	○		
	14. 설천정	944.6	○		
	15. 양졸정	684.6	○		
	16. 수졸당	2346.9	○		
	17. 심수정	1164.2	○		
	18. 이향정	1484.7	○		
	19. 강학당	284.6	○		
	20. 동호정	164.0	○		
	합계	15799.4	18/20 90%	2/20 10%	· /20 0%

양동마을의 마을마당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가문간의 경쟁을 통해 집안 내부에 마을 마당을 형성하게 된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산지형이라는 입지적특성 때문에 개방적이고 접근이 편리한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그림-17] 양동마을마당



[그림-18] 양동마을마당사진



(3) 외암마을

[표-25] 외암마을마당의 형성과정

대상 마을	장소	면적(m ²)	형성과정		
			인위적	자연적	진화적
외 암 리 마 울	1. 승덕비	232.4			○
	2. 장려각	42.7	○		
	3. 반석정	15.7			○
	4. 물레방아	20.2			○
	5. 느티나무	28.87			○
	6. 디딜방아	245.2	○		
	7. 연자방아	83.4	○		
	8. 모정	14.6			○
	9. 정자나무	22.1		○	
	10. 사당	411.8	○		
	11. 감찰댁	160.8	○		
	12. 신창댁	432.7	○		
	13. 건재고택	232.4	○		
	14. 참판댁	700.7	○		
	15. 송화댁	195.2	○		
합계	2838.77	10/16 62.5%	1/16 6.2%	5/16 31.3%	

외암마을의 마을마당 역시 인위적 형성이 주를 이루지만 양동마을과 다른점은 진화적 공간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19] 외암마을마당



[그림-20] 외암마을마당사진



4.2.2 활동성에 따른 분류

마을마당의 활동성은 주민들이 주로 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마을마당에 타나난 활동을 의례, 작업, 놀이, 휴식으로 구분한다. 각 마을별 마을마당의 활동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하회마을

[표-26] 하회마을마당의 활동성

대상 마을	장소	면적(m ²)	활동성			
			의례	작업	놀이	휴식
하 회 마 울	1. 삼신당	392.5	○			
	2. 빈연정사	916.0			○	○
	3. 숲	9075.5	○		○	○
	4. 양진당	157.7		○		
	5. 충효당	1314.3		○		
	6. 북촌택	410.2		○		
	합계	12266.2	2/9 22.2%	3/9 33.3%	2/9 22.2%	2/9 22.2%

하회마을은 삼신당과 숲에서 마을의 제례를 통하여 의례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빈연정사와 숲에서 놀이와 휴식의 활동을 보인다. 또한 경작지와 주거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어 반가의 마당을 이용한 작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숲에서는 넓은 면적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성을 보이는데 이는 공공성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양동마을

[표-27] 양동마을마당의 활동성

대상 마을	장소	면적(m ²)	활동성			
			의례	작업	놀이	휴식
양 동 마 울	1. 은행나무	608.4	○		○	○
	2. 당목	450.7	○		○	
	3. 우물터	99.5		○		
	4. 방아터	21.2		○		
	5. 안락정	421.1			○	○
	6. 관가정	1420.5	○		○	○
	7. 손동만가옥	2162.9		○		
	8. 낙선당	1238.3			○	
	9. 수은정	371.3			○	○
	10. 내곡정	326.2			○	○
	11. 무침당	665.5			○	
	12. 경산서원	715.4	○			○
	13. 향단	224.8			○	○
	14. 설천정	944.6			○	○
	15. 양졸정	684.6			○	○
	16. 수졸당	2346.9			○	
	17. 심수정	1164.2			○	○
	18. 이향정	1484.7			○	○
	19. 강학당	284.6				○
	20. 동호정	164.0			○	○
	합계	15799.4	4/35 11.4%	3/35 8.6%	15/35 42.9%	13/35 37.1%

양동마을은 산지형으로 평지확보가 쉽지 않아 마을 전체 주민이 모이는 넓은 마을마당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예전부터 내려온 가문간의 경쟁관계로 인해 정자를 중심으로 마을마당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자를 바탕으로 놀이와 휴식이 기능이 나타나고 마을위치상 평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농경지와 주거지 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작업의 활동성이 적게 분포한다. 또한 의례기능은 마을전체에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외암마을

[표-28] 외암마을마당의 활동성

대상 마을	장소	면적(m ²)	활동성			
			의례	작업	놀이	휴식
외 암 리 마 울	1. 승덕비	232.4	○			
	2. 장려각	42.7	○			
	3. 반석정	15.7			○	○
	4. 물레방아	20.2		○		
	5. 느티나무	28.87	○			
	6. 디딜방아	245.2		○		
	7. 연자방아	83.4		○		
	8. 모정	14.6			○	○
	9. 정자나무	22.1	○			○
	10. 사당	411.8	○			
	11. 감찰댁	160.8		○		
	12. 신창댁	432.7		○		
	13. 건재고택	232.4		○		
	14. 참판댁	700.7		○		
	15. 송화댁	195.2		○		
합계	2838.77	5/18 27.8%	8/18 44.4%	2/18 11.1%	3/18 16.7%	

외암리 마을의 마을마당은 반가를 중심으로 작업의 기능이 주를 이룬다. 또한 양동마을과 비슷하게 마을 전체에 의례기능의 마을마당이 존재한다. 외암마을에서는 적은 면적의 마을에 많은 수의 마을마당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연환경 때문으로 여겨지며 마을 내부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놀이와 휴식의 기능 또한 나무와 정자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4.2.3 장소성에 의한 분류

마을마당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장소성은 마당이라는 장소로 인식시키는 요소로 공간제한요소, 지형요소, 수식적 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회마을

[표-29] 하회마을의 장소성

대상 마을	장소	면적 (㎡)	장소성										
			공간제한요소					지형요소		수식적요소			
			건물	담	길	강	숲	평지	경사 지	수목	정자	숫대	장승
하 회 마 을	1.삼신당	392.5		○					○		○		
	2.빈연정사	916.0		○					○			○	
	3.숲	9075.5			○	○	○		○	○			
	4.양진당	157.7	○	○				○					
	5.충효당	1314.3	○	○				○					
	6.북촌댁	410.2	○	○				○					
	합계	12266.2	3/11	5/11	1/11	1/11	1/11	5/6	1/6	2/3	1/3	.	.

하회마을의 마을마당의 장소성은 공간을 제한하여 장소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담과 건물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하회마을의 마을마당이 주거지의 내부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은 평지에 형성되고 수목과 정자를 이용해 장소성을 부여한다.

(2) 양동마을

[표-30] 양동마을마당의 장소성

대상 마을	장소	면적 (㎡)	장소성											
			공간제한요소					지형요소			수식적요소			
			건물	담	길	강	숲	평지	경사 지	수목	정자	숫대	장승	
양 동 마 울	1.은행나무	608.4			○					○	○			
	2.당목	450.7			○				○		○			
	3.우물터	99.5		○	○				○					
	4.방아터	21.2				○	○	○						
	5.안락정	421.1		○						○		○		
	6.관가정	1420.5		○						○		○		
	7.손동만가옥	2162.9		○						○				
	8.낙선당	1238.3						○		○				
	9.수은정	371.3		○						○				
	10.내곡정	326.2		○						○		○		
	11.무침당	665.5		○						○				
	12.경산서원	715.4		○				○	○					
	13.향단	224.8		○						○				
	14.설천정	944.6		○						○		○		
	15.양졸정	684.6		○						○		○		
	16.수졸당	2346.9		○						○				
	17.심수정	1164.2		○				○		○		○		
	18.이향정	1484.7		○						○		○		
	19.강학당	284.6						○		○				
	20.동호정	164.0		○						○		○		
	합계	15799.4		15 /24	3 /24	1 /24	5 /24	4 /20	16 /20	2 /10	8 /10			

양동마을의 마을마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곳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담을 많이 사용했으며 공간의 이동에 사용되는 길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입지상 산지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사지에 형성되었고 수식적 요소로는 정자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외암마을

[표-31] 외암마을마당의 장소성

대상 마을	장소	면적 (m ²)	장소성											
			공간제한요소					지형요소		수식적요소				
			건물	담	길	강	숲	평지	경사 지	수목	정자	숫대	장승	
외 암 리 마 을	1.승덕비	232.4			○				○				○	○
	2.장려각	42.7			○				○			○		
	3.반석정	15.7				○	○			○	○	○		
	4.물레방아	20.2			○	○	○			○	○			
	5.느티나무	28.87	○	○	○				○		○			
	6.디딜방아	245.2	○	○	○				○					
	7.연자방아	83.4	○	○	○				○					
	8.모정	14.6			○	○			○		○	○		
	9.정자나무	22.1			○	○			○		○			
	10.사당	411.8	○	○	○				○					
	11.감찰덕	160.8	○	○	○				○					
	12.신창덕	432.7	○	○	○				○					
	13.건재고택	232.4	○	○	○				○					
	14.참판덕	700.7	○	○	○				○					
	15.송화덕	195.2	○	○	○				○					
합계	2838.77	9/38	9/38	14/38	4/38	2/38	13/15	2/15	5/10	3/10	1/10	1/10		

외암마을의 공동마당은 대부분마을 내부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길이 마을마당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마을길의 교차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회마을과 같이 평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마을마당의 수식적 요소는 수목이 많으나 장승과 숫대를 사용하는 것은 하회마을과 다른점이다.

V. 마을길과 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 연구는 한국전통마을의 마을길과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에 관해 연구하는데 있어 지리적특성이 다른 전통마을을 비교 분석하여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 대상 마을의 길과 마당의 공공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길의 공공성 분석결과

[표-32] 마을길의 위계성 분석결과

공공성	마을	하회마을		양동마을		외암마을	
	분석기준	분포도	구성비	분포도	구성비	분포도	구성비
위계성	동구길	291.8m /6674.8m	4.4%	206.6m /10530.6m	2.0%	71.2m /3718.8m	1.9%
	동네길	3159.6m /6674.8m	47.3%	3485.7m /10530.6m	33.1%	1484.1m /3718.8m	39.9%
	골목길	3223.4m /6674.8m	48.3%	6838.3m /10530.6m	64.9%	2163.5m /3718.8m	58.2%

대상 마을별 위계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길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골목길의 분포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동구길이 5%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네길과 골목길의 비율은 마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하회마을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다른 대상지와 달리 동네길과 골목길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평지에 위치한 하회마을의 지리적특성과 지형상 강과 숲에 둘러싸인 고립지형으로 인해 마을 외곽에 위치한 동네길의 형성과 이용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양동마을길의 특징

은 골목길의 비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산지에 위치하고 지형에 맞게 주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주거지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주거 배치가 결정되고 이는 길의 형성과 위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33] 마을길의 위계성에 따른 공공성 분석결과

공공성		마을			하회마을			양동마을			외암마을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			
활동성	행사	291.8 4.4%		43.4 0.7%	206.6 2.0%	631.0 6.0%		71.2 1.9%	140.4 3.8%				
	만남		808.3 12.1%	827.0 12.4%		338.7 3.2%	2162.5 20.5%			1772.5 47.7%			
	이동		1839.4 27.6%	2289.2 34.3%		1230.6 11.7%	4675.8 44.4%		898.8 24.2%	391.0 10.5%			
	경계		511.9 7.7%			1285.4 11.9%			444.9 11.9%				
연속성	분기점	세 갈래	1/24 4.2%	17/24 70.8%	6/24 25%	1/27 3.7%	14/27 51.9%	12/27 44.4%	2/21 9.5%	15/21 71.4%	4/21 19.1%		
		네 갈래					10/20 50%	10/20 50%		1/1 100%			
	교차점	세 갈래	1/38 2.6%	17/38 44.8%	20/38 52.6%		11/23 47.8%	12/23 52.2%		1/8 12.5%	7/8 87.5%		
		네 갈래					8/17 47.1%	9/17 52.9%		3/7 42.9%	4/7 57.1%		
	길이	121이상	31-40	21-30	121이상	21-30	0-10	41-50	101-110	31-40			
	폭	6-7	5-6	1-2	5-6	3-4	1-2	5-6	3-8	2-6			

전통마을에서 마을길은 이동, 만남의 활동을 보이는 공공공간으로 행사와 경계를 포함한 활동성을 가진다. 대상마을의 활동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동의 기능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민간

의 이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위계가 높을수록 행사의 기능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간 경계도 동네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상마을 중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곳은 외암마을길이다. 규모면으로 작은 외암마을에서는 골목길에서의 만남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마당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마을 내부에 위치한 마을마당으로 가는 통로인 골목길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마을길은 마을의 구조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마을길의 연속성의 분류 중 길의 변환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길의 변환은 대상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분기점과 교차점 변환이 세갈레길로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변환지점으로 길을 살펴보면 동구길은 분기점이 동네길은 분기점과 교차점이 된다. 이는 길의 위계에 따른 활동성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상 마을 중 양동마을길은 분기점과 교차점이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골목길의 분포가 높기 때문이며 산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위계성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길의 연속성 또한 마을의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길의 길이 역시 공통적으로 동구길의 길이가 길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길의 연속과 분절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른 폭의 수치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외암마을은 골목길의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데 이는 활동성에서도 나타났듯이 마을마당으로의 이동경로로서 마을길의 연속성이 극대화 되었고 이동을 포함한 만남의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마을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마을길의 공통점과 차이점

1.1.1 위계성

위계성에 따른 공통점은 동구길의 구성비가 가장 적고 골목길의 구성비가 높다는 점이다. 동네길과 골목길이 마을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골목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골목길은 다양한 곳에서 길과 길, 길과 집, 길과 마당을 연결해주는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마을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하회마을길은 위계상 분류에서 동네길과 골목길의 분포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는 평지에 위치한 하회마을의 지리적특성과 지형상 강과 숲에 둘러싸인 고립지형으로 인해 마을 외곽에 위치한 동네길의 형성과 이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동마을길은 골목길의 비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산지에 위치하고 지형에 맞게 주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곳곳에 주거지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대상 마을마다 위계에 따른 구성비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주거지위치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1.1.2 활동성

위계성에 따라 분류되어진 길의 활동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마을의 마을길 활동성의 공통점은 길의 주된 기능인 이동이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며 다음으로 만남의 활동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동구길과 골목길은 다양한 활동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경계로 활용되는 길은 동네길이다. 마을별 차이점은 하회마을의 행사는 골목길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하회마을의 삼신당의 위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회마을의 삼신당은 마을 내부 중심에 위치하여 골목길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이루어진 구조이다. 때문에 다른 대상마을의 골목길에서 나타나지 않는 행사의 활동이 골목길에서도 행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외암마을은 다른 대상마을과는 달리 골목길에서 만남의 활동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마당의 위치와 마을의 구조에 영향을 받은 특징이다. 외암마을은 마을의 구조가 가로로 긴 형태이고 마을마당이 마을내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마을마당으로 가기 위한 통로인 마을길에서 만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마을길의 활동성은 길의 위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마을길의 활동성은 마을내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1.1.3 연속성

마을길은 변환방법에 따라 분기점과 교차점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고 분기점과 교차점이 되는 마을길은 주로 세갈래로 변환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리고 변환지점으로 길을 살펴보면 동구길은 분기점이 동네길은 분기점과 교차점이 된다. 이는 길의 위계에 따른 활동성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상 마을 중 양동마을길은 분기점과 교차점이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골목길의 분포가 높기 때문이며 산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회마을길은 네갈래 형태의 분기점과 교차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이것은 평지형의 하회마을의 입지적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여기에서 위계성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길의 연속성 또한 마을의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마을길의 길이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동구길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위계가 높을수록 길의 길이가 길고 폭이 넓다. 그리고 외암마을길의 동네길과 골목길의 폭이 넓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외암마을의 마을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마을의 구조가 가로로 긴 형태이고 동네길은 그곳을 통과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이 다른 대상마을보다 넓게 나타나는 것은 동네길에서 나타나는 활동성이 이동 이외에 만남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길의 연속성은 마을의 구조에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결과

[표-34] 마을마당의 공공성 분석결과

요소별		항목별		하회마을		양동마을		외암마을	
		분석기준		하회마을마당		양동마을마당		외암마을마당	
형성과정	인위적	4/6	66.0%	18/20	90%	10/16	62.5%		
	자연적	1/6	16.7%	2/20	10%	1/16	6.2%		
	진화적	1/6	16.7%		0%	5/16	31.3%		
활동성	의례	2/9	22.2%	4/35	11.4%	5/18	27.8%		
	작업	3/9	33.3%	3/35	8.6%	8/18	44.4%		
	놀이	2/9	22.2%	15/35	42.9%	2/18	11.1%		
	휴식	2/9	22.2%	13/35	37.1%	3/18	16.7%		
장소성	공간제한요소	건물	3/11	27.4%			9/38	23.7%	
		담	5/11	45.6%	15/24	62.5%	9/38	23.7%	
		길	1/11	9.0%	3/24	12.5%	14/38	36.8%	
		강	1/11	9.0%	1/24	4.2%	4/38	10.5%	
		숲	1/11	9.0%	5/24	20.8%	2/38	5.3%	
	지형요소	평지	5/6	83.3%	4/20	20%	13/15	86.7%	
		경사지	1/6	16.7%	16/20	80%	2/15	13.3%	
	수식적요소	수목	2/3	66.7%	2/10	20%	5/10	50%	
		정자	1/3	33.3%	8/10	80%	3/10	30%	
		숫대		0%			1/10	10%	
		장승		0%			1/10	10%	

마을마당의 형성과정에 따른 분석결과는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 세심하게 계획된 공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체생활을 하는 전통마을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고 공공공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환경도 마을마당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대상마을보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하회마을에서 다른 대상마을보다 적은수의 마을마당이 존재 하는 것으로 추론한 것이다. 또한 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면적이 넓을수록 다양한 활동을 나타낸다. 마을 외곽에는 놀이와 휴식을 위한 마을마당이 존재하고 작업공간은 마을 내부에 위치한다. 하지만 양동마을은 농경지와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어 마을내부에 작업을 위한 마을마당의 분포도가 낮다.

마을마당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요소를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마을마당은 담을 통한 장소성부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형성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공간이 주를 이루고 구체적인 구조물은 담을 주로 사용했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 그 자체도 공간으로써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숲이나 강 등이 마을마당을 구성하게 하는 요소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가능하다. 또한 지형요소로는 평지에 주로 형성되지만 양동마을과 같은 산지인 경우 정자와 같은 수식요소를 이용하여 경사지에 마을 마당을 만들었다. 수식요소 중에는 나무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외암마을은 나무와 정자 이외에 솟대와 장승과 같은 수식적 요소를 다양하게 사용한 특징이 있다. 대상지별 마을마당에 나타난 공공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마을마당의 공통점과 차이점

2.1.1 형성과정

마을마당의 형성과정에 따른 공통점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마을마당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점은 생활양식과 마을의 여러 공적 활동을 위한 공공공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이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마을마당은 자연요소 자체가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다른 대상지보다 자연요소의 조건이 좋은 하회마을의 마을마당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결과이다. 대상마을 중 양동마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화, 변용된 공간이 나타나지 않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마을마당은 마을마다 지형과 사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공공공간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마을마당을 형성한 공통점을 보였다.

2.1.2 활동성

마을마당의 활동성에 따른 공통점은 의례공간은 마을 내부에 주로 위치하고 놀이와 휴식은 자연환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또한 마을마당은 면적이 넓을수록 다양한 활동성을 가진다. 하회마을 마당은 다른 대상마을보다 적은수의 마을마당을 가진다. 이는 자연환경 자체가 마을마당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례, 작업, 놀

이, 휴식의 기능이 비슷한 비율로 골고루 행해진다.

양동마을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작업이 나타나는 마을마당이 현저히 적다는 것인데 이것은 양동마을은 주거지와 작업공간인 평야지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2.1.3 장소성

마을마당의 장소를 부여하는 장소성의 공간제한요소 중 담의 활용도가 높은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연환경 역시 장소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대상마을 모두 강과 숲을 이용하여 장소성을 확보하였다. 지형요소에서는 대상마을의 입지 조건에 순응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평지가 주를 이루는 하회마을과 외암마을은 평지에 산지형인 양동마을은 경사지에 마을마당이 형성되었다. 수식요소 중에서는 수목과 정자의 요소가 주로 이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외암마을에서는 솟대와 장승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이용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마을마당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마을은 양동마을이다. 먼저 건물을 이용한 공간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평지의 확보가 어려워 건축적요소를 주로 이용하여 마을마당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마당의 분포는 마을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비슷한 수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장소성을 부여하고 자연환경 자체가 한 장소로서 인지되어 마을마당의 기능을 가지는 공통점을 보였다. 또한 지형요소가 마을마당 형성 조건에 영향을 주었다.

Ⅵ. 결론

본 논문은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통공간의 공공성 요소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을 전통마을의 마을길과 마을마당으로 구체화하였다. 이것은 전통공간의 공공성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이 내포된 공공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마을 중 지리적 조건이 상이한 안동하회마을, 월성양동마을, 아산외암마을로 하였다. 연구는 사례지역의 현장조사 및 사료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파악하고 마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의 결과로 하였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보편화된 질서체계로 인한 획일화된 건축 환경과, 더불어 역사적 전통성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진 개발로 인한 도시문제의 발생이다. 이와는 반대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갖춘 사회구성원들은 공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풍요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회생활이란 공동체 생활은 개개인의 공동체생활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전개된다. 공공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사회를 형성하고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전환으로 기존의 비환경적 공간에서 벗어나 사용자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진 공공성이 확보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는 다른 관점의 현대사회공간의 문제는 보편화된 질서체계와 인한 기능주의적 발상으로 인한 획일화된 건축 환경 조성의 역사 및 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소적 고유성의 파괴는 물론 전통의 맥이 유지되지 못한 채 정체성 상실의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관심들로 인해 획일화된 근대성을 반성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본 연구는 현대도시의 원류인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공공공간으로 한정하고 진행하였다. 전통마을에서 마을길과 마을마당은 공공공간이다. 이곳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만남을 갖는다. 또한 함께 작업하고 놀이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면서 마을길을 매개체로 하여 마을마당에 이르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지속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공간인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주택에서부터 골목길을 지나 동네길과 동네길을 거쳐 도착하는 마을 마당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적영역, 공공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분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충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였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즐기면서 사회적유대감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통적의미의 공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길은 위계성, 활동성, 연속성으로 파악하고 마을마당은 형성과정, 활동성, 장소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대상 마을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마을의 공공공간은 필요에 의해 생성, 발전되어졌고 지리적 특성에 맞게 위치하고 변형되어졌다는 점이다. 전통마을에서 나타난 공공공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 째,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은 공동체의식 형성을 필요로 하고 공공공간을 구성하였다.
- 둘 째, 사회구성원들은 장소 활용하는 활동성에 따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였다.
- 셋 째, 전통마을의 마을길은 위계와 기능에 따라 동구길, 동네길, 골목길로 나눌 수 있고 활동성과 연속성을 통해 마을길의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길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유대감 형성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넷 째, 마을마당은 마을의 지형과 생활양식에 따른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마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였다.
- 다섯째, 마을마당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고 이는 마당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준다.
- 여섯째, 공공공간의 공공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었지만 같이 즐기고 공유하는 공간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분석하고 전통공간 안에서 표현된 공공성을 분류, 분석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전통의 요소를 가지는 구체적인 공공공간이 제시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연구에서는 공적영역의 기획에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한 발전적인 공공공간의 형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인호,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2000
- 강영환,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0
- 권영길, 「공간디자인16강」, 도서출판국제
- 권영길, 「뉴 패러다임 사회의 공간문화와 인간환경에 대한 쟁점과 대안」
월간 인테리어
-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spacetime, 2001
- 김광언, 「한국의 주거 민속지」, 민음사, 198
- 김봉렬,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1999
- 김용직, 「하회마을」, 열화당, 1981
-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1998
- 이중환,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 임재해, 「안동하회마을」, 대원사, 1992
- 임재해, 「안동마을 하회여행」, 밀알, 1994
- 장기인, 「양동마을 민가들」, 건축문화, 1982
-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8
- 한주성, 「교통지리학」, 법문사, 1996
-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85

<해외문헌>

- Senett, R(1987), Public Domain, Nathan Glazer and Mark Lilla (eds),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New York.
- Madanipour, A.(1995), Reading the City, Managing Cities
「The New Urban Context」,

- Wiley, J. & Sons Ltd, 「Chichester」, England.
- Arendt, H.(1987), The Public Realm
「The Common, Nathan Glazer and Mark Lilla(eds),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New York.
- Scruton, R.(1987), Public Space and the Classical Vernacular, 「Nathan Glazer and Mark Lilla (eds),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New York.
- Madanipour, A.(1995), Reading the City, Managing Cities
「The New Urban Context」,Wiley, J. & Sons Ltd, Chichester, England.
- Yoshinobu Ashigara,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기문당
- Spiro Kostof, 「The Nature of Public Places」, The City Assembled,
Thames & Hudson
- Colomina, B.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대중매체로서의 근대건축 (Privacy and Publicity)」, 박훈태,송일영 역 서울 문화과학사
- Stanford Anderson On Street, Cambridge, M.I.T.Press, 1978, p.15
박수국, 「전통마을 공간의 동선구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재인용
- 한나아렌트, 「폭력의세기」, 김정한 옮김, 1999

<학위논문>

- 고일석, 「영남지방 농촌마을의 길과 장소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경원, 「가로조건에 따른 전통주거지의 좌향 및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학위논문, 2003
- 김근교, 「한국전통마을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미진, 「도시내 한옥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민수, 「문화주의 도시건축 디자인론, 경성대학교 학술연구」, 2000
- 김용미, 「한국 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희춘, 「한국의 전통과 건축」, 건축학회창립30주년 기념논문, 1975
- 박양균, 「전통마을과 현대적 집합주거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비교 고찰」,
대한건축학회
- 선우정우, 「한국전통주택 마당의 척도·비례 분성을 통한 폐쇄성 및
개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심혜자, 「촌락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풍수지리적 특징」,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안재락, 「한국전통 상류주택의 건축해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 논문집 7집, 1984
- 오정은, 「선큰 스페이스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승진, 「한국 전통주거 건축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2001
- 이영진, 「한국 농촌의 주거공간에 관한 문화인종학적 연구」, 1980
- 이정훈, 「전통마을 길·마당의 시지각 차폐도 분석을 통한 공간특성에 관한연구」,
충남대석사학위논문
- 이창훈, 「건축물의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5
- 이종란, 「중간영역의 개념을 도입한 백화점 저층부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1
- 장영우,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태현, 「도시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사학위논문, 1996
- 정무용, 「한국전통건축의 외부공간의 단계적 질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1984
- 정시춘, 「조선시대 반가중심 마을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1990
- 조창환, 「한국전통마을 배치체계 및 공간구성에 관한 종합적 해석」, 경희대
도시건축연구소, 1988
- 최동호, 「한국전통주거공간의 마당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1995

<기타>

경주시청홈페이지

경상북도, 하회마을보고서

경상북도, 양동마을보고서

남광우, 이용백, 이윤환 감수,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1980

두산 세계 대백과

문화재청홈페이지

새한건축사사무소, 외암리민속마을, 아산군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74

<http://cafe.naver.com/asanmap/3823>

<http://cafe.naver.com/poongdc/7>

<http://blog.naver.com/21901203/30014203052>

ABSTRACT

A Study on Public mentioned in space organization of Korea traditional village

Park, Ji-youn

Industrial Space Desig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Lee, Hong-goo

In order to solve the modern society's problems for preserving the tradition and common interest for the use of common or public space, this dissertation is intended to let people know of common interest recovery and the common interest and tradition for the use of such public space. The author, in this process, researches traditional towns, roads and backyards.

The author specifies the method for research and analysis of traditional common interest and use of public space by using a Korean-style of identity. For example, the author uses three sample towns: 'Andong Hawhae' town, 'Wolsung Yang-dong' town and 'Asan Yoiam' town. The research is based on inspection, through town inspection, of the resources available through these

sample towns in order to analyze the common interests and uses of public space between and among the different towns.

Through this research, the meaning of common or public interest is explained and this meaning is discussed through this research. The author analyzes the hypothesis that common interest has been weakened and, in some cases lost,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cities, which are functionally oversimplified. The traditional use of public space is lost. The prominent use of public space in the current, modern city is focused on individuals and small families, so human isolation is common in the modern city. However, the traditional cities had lots of common space that people used publicly, together, so the author wants to research this traditional use of public space to argue for its preservation in modern cities.

The author then, through this research, verifies the theoretical ideas for the use of public space, and looks into direction of modern city development for the recovery of public use space. The author analyzes public use through such use of common space in traditional, Korean towns. To accomplish this, the author analyzes the three Korean towns, focusing on the use of public spaces for roads and backyar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owns? public interest in common things and different things. The author compares these three towns, public use and common things, and uses them as the basis of this research.

In the second and third chapter, the author establishes the foundation of her research. Specifically, in the second chapter the author u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public use – summarizing theoretical knowledge through public use research, especially 'S.kostof' common space. The author suggests research background based on 'S.kostof' common space use theory. In the third chapter, the author analyzes how common use space came to be formed in the traditional towns, to the formation of specific public structures and the related ideas and theory. In this research, the author analyzes tradition public structures – especially roads and backyards, using the roads and backyards of the sample towns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paper. In the fourth and fifth chapters, this is the main research point, especially in the fourth chapter where the author brings these examples of research and analyzes them.

In the fifth chapter, the author states the conclusion of her research, specifically explaining the common and different interests between roads and backyards of traditional town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that the town backyard, this is an area that anybody can access and approach, and is considered public space from house to house, by roads and narrow streets. In this space, traditionally public space, people gathered to speak and express their points of views to others, and satisfied their desired to restore such common space and social time. Through

this process, people shared their feelings and emotions, and enjoyed the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the research, public use is summarized as follows for roads, towns and backyards:

- (1) Traditionally, social people used common space together, where they conversed, shared their feelings with one another, and identified with the space as public;
- (2) Social people defined public and private space according to use by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s;
- (3) Traditional roads divided into lanes (narrow streets), streets and boulevards based on function, through the activities and continuity of those roads. Town roads played a role as a means for making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groups of people, in order to make continuous communication;
- (4) Town backyards have been formed based on the town locations and people's lifestyle in the backyard. They formed physical, social and mental public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raditionally;
- (5) The town backyard has diverse resources to make the location an influence for the activity of the backyard;
- (6) The use of public space has changed over time. However, the space necessity never changes at all in relation to enjoy and sharing.

Conclusion. In this research, the author analyzed public use from traditional space and came to a conclusion. However, through the research of these traditional resources, the specific nature or character of public space was not well defined. That's why, in the future, in order to better research in this top, a more detailed analyses of specific exampl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mmon or public use space is needed,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planning and use of resources for traditional common or public spaces.